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白頭山探險團을 보냄

一

本社主催의 白頭山探險團 一行은 豫定과 가티 今七日 目的地를 向하야 出發한다. 踏程 三千里, 京城으로부터 茂山, 惠山鎭으로부터 京城까지를 除하고는 總延 千餘里에 亘한 山岳地帶로서 全然 徒步를 要한다. 或은 林原地帶를 헤치고 가며 或은 砂礫地帶를 跋涉하야가되 六、七夜를 山中에서 露營하며 飮水와 食料의 不自由와 싸와야한다. 게다가 白頭一帶는 海拔 一千餘米의 高嶺地帶로서 氣溫이 低下하야 夜間에는 攝氏 四、五度를 摸倣한다 한다. 今番 白頭山探險團의 斷行은 實로 글자그대로의 探險的 壯擧라 안흘수 업다.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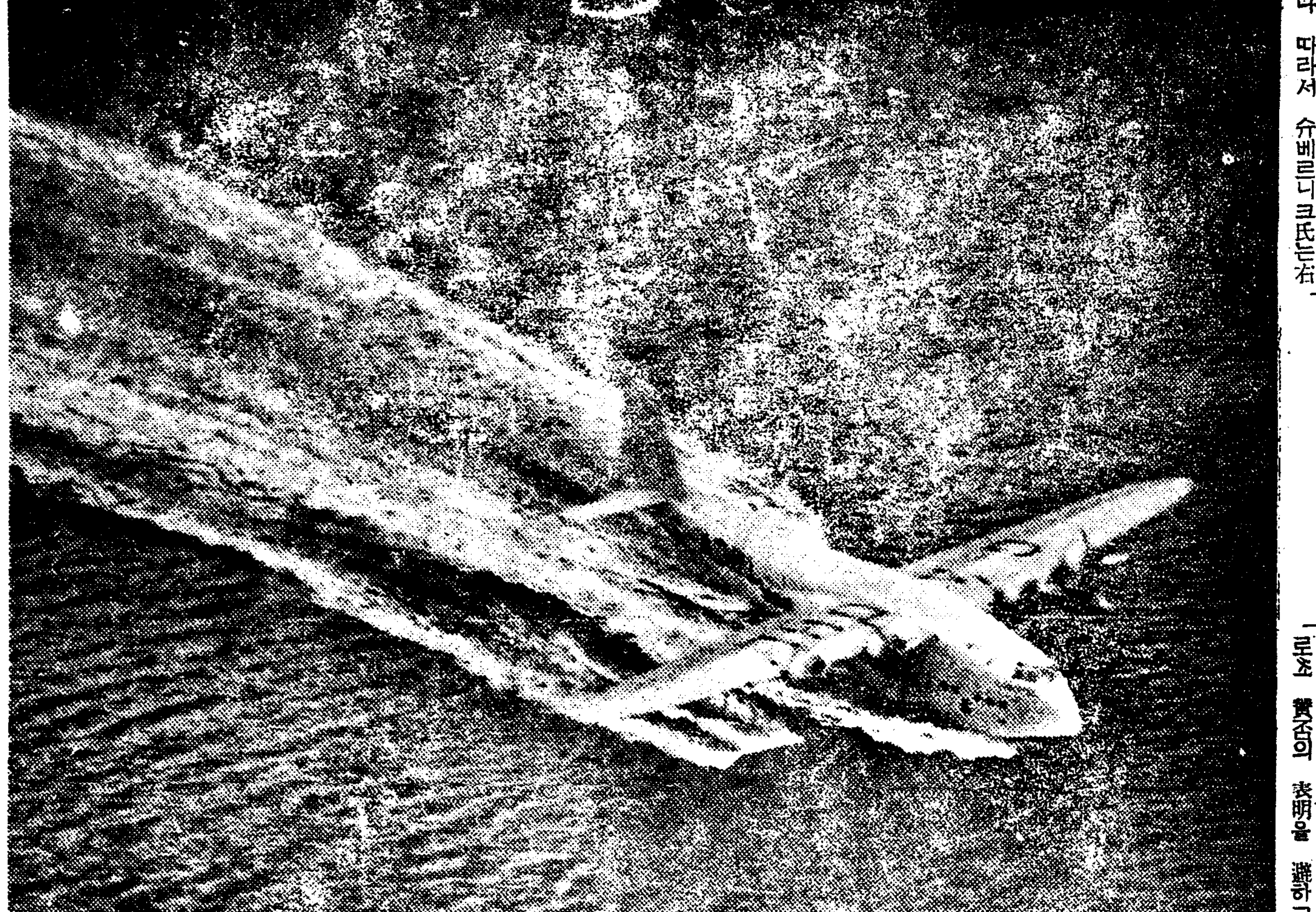
그러면 우리는 왜 이가티 險하고 괴로운 旅行을 일우러 莫大한 經費를 要하며 斷行하랴는가. 첫재 우리는 冒險心을 養成하자 함이다. 누구나 아는바와 가티 世界는 冒險的 行動에서 發展과 向上이 잇섯다. 亞米利加의 發見도 컬럼버스의 冒險心의 産物이오, 近世 和蘭의 海上權의 制覇나 最近世史의 英國의 世界制覇나 모다 冒險心 海外進出心에 依한것이다. 萬一에 西歐人의, 冒險心이 업섯든들 阿弗利加의 大陸도 大自然의 그대로 남어잇섯슬 것이오, 北極, 南極의 地形도 우리 地圖上에 나타나지 안엇슬 것이다. 오즉 이뿐이랴 空中을 나는 飛行機와 航空船, 水上과 水中을 닷는 汽船, 潛水艦이 모다 科學者의 冒險心이 업고는 今日과 가튼 成果를 나타내지 못햇슬것이다. 現下 世界가 들어 간쟁쟁가의 高峰을 踏破하랴 競爭하는것은 這間의 消息을 말하는것이 아니랴

三

둘재는 白頭山의 地理的, 歷史的, 地質學的, 博物學的 온갓 方面에 잇서서의 科學的 探求心을 養成하자 함이다. 白頭山은 二百年來의 死火山이라 諸他山系와 地質을 달리햇고, 우리 扶餘族과 發祥地요 그後의 滿洲人과의 角逐地인만큼 歷史的 源流이 기픈곳이다. 그리고 海拔千餘里에 亘한 海拔二千餘米突의 高原地帶는 高山植物과 高原動物의 分布에 異常한 現象을 나타냇슬 것이며, 氣溫, 其他의 變化도 平野와 다를것이다. 이 모든것을 各其 專門方面으로 우리힘으로 探求하면 그所得은 相當할것이다.

四

勿論 時日이 短促하기 때문에 完全한 冒險과 科學的 探求가 可能하리라고는 생각지 안는다. 그러나 朝鮮서는 白頭山以上으로 探險的 地帶로서나 適當한곳이 업다. 況 朝鮮民族과 가장 因緣이 깁흔歷史를 가지고 가장 高山地帶를 우리의 眼前에서 探險한다는것은 冒險的, 科學的 探求的 精神外에 一層 ...


世界一의精銳機로英國이 자랑하는 포ㅣ커機의滑走

蘇聯、팟쇼反對高唱 西政府積極援助
佛白兩政府에 팟쇼打倒國際會議招集要請
西大統領에 激勵電報

【東京電話同盟】蘇聯各新聞은西班牙動亂勃發以來多大한 紙面을 割愛하야 公然히 西班牙政府軍援助를 宣傳하고 잇는데六日佐藤駐佛大使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公電에 依하면 蘇聯邦은 팟쇼反對 聯盟戰爭反對를 高唱하고 蘇聯代表는 巴里로부터 西班牙大統領及 總理에對하야 激勵電報를 發하고또 佛白兩國政府에對하여도 팟쇼打倒運動의 國際會議召集을 要請할 意向이라고 리고 酒切駐蘇代理大使로부터의 公電에 依하면 莫斯科 레닌그라드에서는 各種工場 勞働者大會를 開催하고 西班牙現政府及 勞働者에게 同情의 意를 表하기 爲하야 月給의 二百分之一을 醵出하기로 決議하고또 蘇聯邦勞働組合聯盟에서는 六日色廣場에 十二萬의 勞働者가 參加하야 大會를開하고 『叛徒와 戰爭하고잇는 勞働者에對하야 同情을 表하고 醵金할것』을 決議하고 官民一致로 西班牙現政府에 多大한 支援을 與하고잇다 한다

寄附大規模募集 西政府軍에 送附
總額一千二百十四萬五千留

【莫斯科六日發同盟】全聯邦勞働組合中央委員會書記長 슈베르니크氏는 스스로 陣頭에서서 西班牙政府援助의 大衆運動을 行하야 寄附金을 募集한結果 西班牙政府에 對한 軍資金提供者가 殺到하야 五日까지에 合計千二百十四萬五千留에 達하엿다 따라서 슈베르니크氏는 右金額을 國立銀行에 寄託하야 銀行當局에 對하야 即時 佛國法貨로 換算하야 西班牙政府首相에게 送付하도록 命令하엿다 右金額은 佛貨로 換算하야 三千四百五十萬法에 達하얏는데 蘇聯機關의 左翼政權支持가 드듸어 露骨化한 證左이다

交戰團體로認定 叛軍을援助
伊太利側의態度

【羅馬五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佛國政府의 西班牙內亂不干涉提議에 對하야 只今까지 愼重態度로써 贊否의 表明을 避하고잇는데 結局 英國政府同樣으로原則的으로 이것을 承認할것으로 보인다 但 伊太利政府는 팟시스트團의 國際的關係上으로 西班牙叛軍을 暗暗裡에 支持하고잇는 關係上 佛國政府의 提議에對해서도 重大條件을 附할것으로 보인다 이點에 關하야 羅馬外交界의 觀測을綜合하건대 如左하다

一、西班牙內亂은 이미 國際問題化하야 單히 數個國의 協定으로는 充分히 目的을 達할수업다 特히 伊太利政府는 果然 蘇聯及 第三인터가 그與否를 遵守할수잇슬는지 多大한 疑念을 가젓다

一、第三인터는 目下 西班牙에서 策動中인데 이外希臘、亞爾然丁 체코슬로바키아其他到處에서 破壞的行動을하고잇는데 이를 阻止할수가 업스면 不干涉協定은實效를期키難하다

一、또 西班牙의 擾亂은 이미 內亂의 域에 擴大되엿以上 國際法에 基하야 叛軍에 對하야 交戰團體의 地位를 承認하고 中立條件에 基하야 各國과의 關係를 律할것이다 웨그런고하면 內亂不干涉만으로는 叛軍에 對한 措置를 支持할수잇스나 政府에 對한 援助를 支持할수업서 偏頗될 가 잇슴으로서다 따라서 米國南北戰爭當時 英佛兩國政府가 政府, 反軍의 雙方을 交戰團體로 認定한 例를 본바며 西班牙反亂을 處置할것이라 主張한다

西叛亂軍目標는 軍事獨裁의確立
廢帝末子알폰드殿下의援助를拒絶
王政復舊아님을言明

【마드리드五日發同盟】불고스의 情報에 依하면 廢帝 알폰소十三世末子 아스토리아公 판·알폰드殿下(?)는 叛軍北軍司令官모라將軍에 對하야 援助를 自請하엿스나 모라將軍은 이를 拒絶하엿다고 傳한다 모라將軍은 『王政派復舊를 企圖하는것이 아니다 軍事的獨裁制를 布하려는 것이다』고 言明한 事實에 비추어 불고스政權의 色彩를 示할것으로 보인다

西內亂膠着狀態
叛軍優勢한곳에서는人民戰線系市民虐殺
政府는팟쇼黨大檢擧

【마드리드五日發同盟】政府發表에 依하면 마라가方面의 政府軍은 五日사리나에라에서 叛軍部隊와 會戰하야이를 包圍하고約 二千名의兵을 捕虜로하고 武器多數를 鹵獲하엿다 其他의地方에서는 數日만에 兩軍이 [illegible]하가 政府軍手中에 歸한 程度는 大體膠着狀態를 繼續中이다 마드리드北方 과다라마嶺을끼고 兩軍의 對峙는 一層硬化한 모양이다 길 兵火를交하게되엿스나 雙方이 無成果이엇다 나우아라島의 叛軍은 方今 暴動化하얏고 한카 其他自派에 優勢한 地點에서는 人民戰線系의 市民에 對하야 虐殺을 行하엿다고 報道되엿다 一方 政府는 各種의 暴民分子掃蕩에 努力中인데 四日 王黨派 팟시스트黨員六百十九名을 一齊히 檢擧하엿다

矢野公使에避難指示

【東京電話同盟】五日矢野公使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公電에 依하면 산·세바스티안市에는 人民戰線防衛委員會가 組織되여 一切의 政權을 運用하고잇는데 銀行, 商店等은 一切閉鎖되여 物資는 漸次로 缺乏되는 模樣이다 當地에 避難中인 外交團은全部 佛國國境에 避難하고 矢野公使만이 남어잇는데 佐藤駐佛大使로부터 산·세바스티안方面의 安全도 保證할수업다는 情報가 잇서 撤退케함이 如何하냐는進言도잇슴으로 有田外相은 五日 矢野公使에 對하야 訓電을發하야 適當한 時機를 選擇하야 佛國國境으로 避難하라는 指示를 與하기로 되엿다

에國臨時政府首班 六萬大軍引率코 東進!
아디스아베바의奪還을目標

【아스마라五日發同盟】코레의에디오피아臨時政府首班라시이물將軍은 麾下軍隊를 再組織하야 六萬의 兵員으로 東進을 開始하엿다고 報道되다 에디오피아軍은 東方알하라 地區를 迂回하야 먼저 아디스아베바를 孤立에 陷케하고 徐徐히 此를 攻略

鄧世增氏再次 李白兩氏와會見

【香港五日發同盟】第四路軍總參謀長鄧世增氏는 一日 南寧으로부터 廣東에 歸着하야 李宗仁、白崇禧兩氏와의 會見顚末을 第四路軍總司令余漢謀、廣東綏靖主任 [illegible] 氏等에게 報告하엿다

宇垣總督 訣別式擧行

宇垣前總督은 六日午前十一時半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擧行된 部內全職員訣別式에서 在任五個年의 感慨를 述하야 半島施政에 協力하여온 部下에 對하야 感謝를 表하고 訣別을 行하고 [illegible] 宇垣前總督이行한 인사의 大要는 左와如하다

回顧하면 昭和六年夏, 大命을 拜하지 벌서 五年有余의 歲月을 經過하엿는데 這間內外의 情勢는 顯著히 變化하야 滿洲事變勃發 滿洲國의 建設 國際聯盟의 脫退 海軍軍縮會議의 不成立 [illegible] 內에잇서서는 [illegible] 二·二六事件等의 不祥事件도 보게되엿다 余는 就任當時 [illegible] 一大決心을 [illegible] 하야 [illegible] 하엿는데 [illegible] 그러나 [illegible] 日本의 位置에조 [illegible] 偉大한 [illegible] 그리고 朝鮮에 잇서서는 余는 日夜 [illegible] 새로히하야 諸君의 協力을 乞하고 官民一致의 [illegible] 어떠 이 時局에 [illegible] 하는바이다

今井田政務總監訣別談

[illegible]

南朝鮮遍歷紀行
南道勝景蟾津江 (四)
徐椿

求禮三街里出發時間, 七月二十四日午後六時半, 날은 將次 저물려는데 河東을 지나 晉州까지 갈길은 遙遠하다. 이런 意識下에 핸들을 잡은 運轉手는 스피ㅣ드를 내기 始作한다. 疾走하는 自働車에 몸이 실니워 녀름에는 잇슬수업는 凉味를 滿喫하면서 左右를 살피니 路面의 左岸에는 智異山連脈이 뻐치엇고, 右岸에는 蟾津江이 徐流한다.

뭇듯 뒤를 도라다보니 求禮邑全景이 一目之下에 환히 드려다보인다.

求禮는 總戶數一千五百戶假量으로서 山間僻地에 位置한 小邑에 不過하나 市街全體가 精潔해 보이고, 方正해 보이며, 建物도 整然하야 比較的 맘에 든다. 現代式家屋이 比較的 만타. 듯는바에 依하면 相當히 지나는 사람이 만코, 個中에는 富豪의 名聲을 擅有한 큰 財産家도 잇다고한다.

이러케 적은 곳, 게다가 山間僻地이면서 富의 出處가 어디 잇슬가? 하는 問題는 初行인 나에게는 疑問일수바게 업섯다.

이疑問을 풀고저 隣坐한 求禮人士에게 무러본 結果에 依하면 求禮가 今日의 富를 致한것은 말하면 智異山의 恩惠요 蟾津江의 惠澤이라고할것이라 한다.

求禮사람들의 傳言에 依하면 求禮에는 所謂 三大가 잇다고한다. 山大水大野大는 이른바 三大인데 智異山을 爲始하야 그 連脈으로 求禮邑을 圍繞한 諸山은 다 相當히 큰것이니 이것이 山大요 朝鮮十大江의 하나인 蟾津江이 바로 明해 흐르니 이것이 水大요, 비록 高地山岳으로 圍繞되면서도 平野로 열닌 一帶는 相當히 넓으니 이것이 野大다.

求禮 今日의 富는 三大의 賜物이다. 郡內耕地의 一部는 豐富한 智異山溪谷水를 灌漑하야 蟾津江 支流西施川을 채우고 그他는 蟾津江의 流域에 傳入하게 된 關係로 郡全體로 보아 耕地面積은 적을 망정 旱害에 凶作을 모르다고한다.

아직도 求禮郡은 淸遊한 鐵道가 敷設되지못하고 잇슴은 障害物智異山과 그 連脈이 잇기 때문이다. 鐵道가 全北部線在谷城까지 오는 以上 不遠에 [illegible] 連絡될러이나 亦是, 山岳의 障害로 求禮邑으로부터 南方 約十里의 地點에 停車場이 생길 모양이다. 이러케 보면 智異山은 求禮致富의 恩人인 同時에 發展의 障害가 되어 잇슴을 알것이다. 그러나 求禮가 끗끗내 奮發努力하야 이 障害를 이기고 智異山을 現代式探勝地로 粉裝하며 資源을 開發하는데 成功하면 求禮는 또한 智異山의 惠澤에 依하야 그 發展을 促進할수가 잇슬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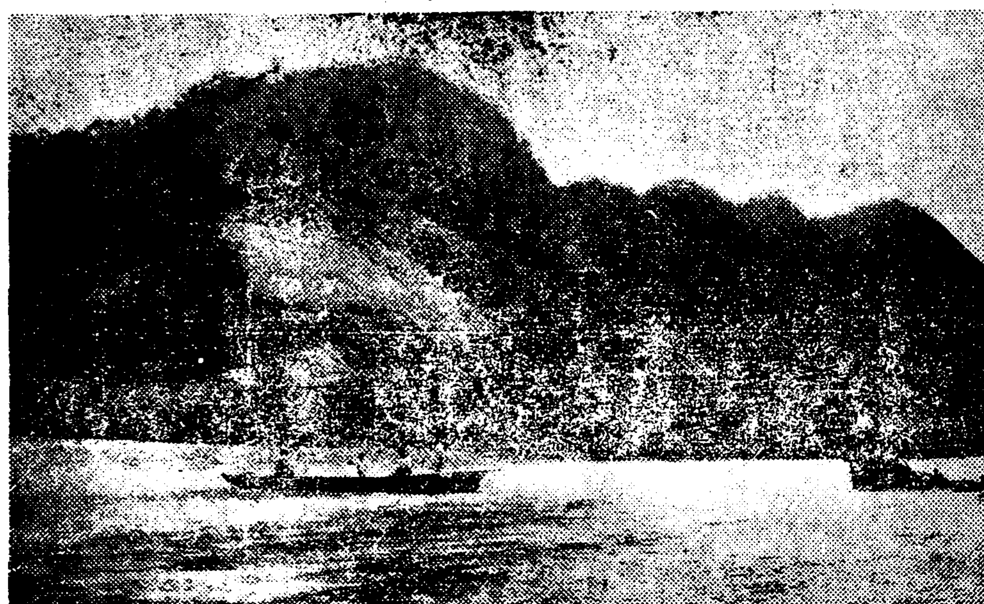
何如間, 求禮는 山紫水明, 景槪秀麗한곳으로서 地氣가 人材에 適하는것인지 古來로 志士, 詩人, 墨客을 多出한 곳이라고 한다. 韓末志士요, 詩人인 黃梅泉은 求禮사람이다.

求禮로부터 河東에 至하는 一百二十里間의 景致는 朝鮮十三道를 다 돌고 보아도 그 類例를 보기가 드므리만치 絶勝한 곳이다. 녯노래에도 景致조흔데를 그리려면 左便은 靑山이오 右便은 綠水라고하거니와 求禮河東間의 景致는 實로 이 典型的景致를 具備하는 同時에 다시 한가지 景致를 더 添加해가지고 잇다.

求河間의 景致를 그대로 그리려면 左靑山右綠水의 一言으로는 不足하고 『左靑山右綠水에 綠水건너 또 靑山』이라고 해야 거이 그全景을 彷彿케할수가 잇슬것이다.

求禮로부터 河東까지 蟾津江이 多少의 屈曲을 가지고 죽 나려 다앗는데 兩地間의 自働車路는 즉 그左岸을 若干의 距離를 相距하야 江流와 併行하고잇다.

自働車路에서 보면 左便으로 智異連脈이 죽 다앗고 蟾津江彼岸에는 求禮、光陽의 兩郡을 還하야 河流와 併行한 別다른 山脈이 죽 느러잇다. 求禮郡長文面에 屬하는 五峰山이라는것은 그別다른 山脈의 中樞格으로 되여잇는데다.



自働車우에서 左右를 살피면 兩岸靑山에 樹林이 鬱蒼해 잇고, 가다금 奇岩絶壁이 屛風에 繡紋노히듯이 노히어 잇슴을 본다. 一幅의 丹靑이라고할만한 奇岩絶壁이 淸流에 그 倒影을 잠가 잇는데 數隻帆船이 그으로 閑暇히 往來하는 風致는 實로 무어라고 形言할수업는 絶景이다.

蟾津江에는 또한 魚類가 만흔데 그中에서도 特産이라고할만한것은 銀魚다. 蟾津江은 元來 全北全州로부터 發源하야 任實, 南原, 淳昌, 求禮等 中間十三郡의 流水를合하야 흐르는 江으로서 이江이 흐르는 곳에는 어데나 大槪 銀魚가 잇는 모양이나 그中에서도 第一로 銀魚가 만히 나는데는 南原으로부터 下流의 地라고한다. 南原도 銀魚의 名産地요 求禮도 銀魚의 名産地다.

景致로 有名하고 魚産으로 有名한 蟾津江은 舟楫河運으로도 重大한 價値를 가젓슴은 勿論이어니와, 이 모든것보다도 蟾津江의 重大價値는 流域一帶의 耕作에잇다. 이 江은 全北으로부터 고郡을 灌하야 全南을 經由하야 慶南河東郡에 流入하는데서 南海에 注入하는데 이 江의 流域一帶는 水源의 豐富로 地味가 따라서 肥沃하야 年年히 五穀이 豐登한다는것이다.

蟾津江沿岸一帶에는 또한 沙金을 多産하야 現在에도 處處에서 採掘하야 다 相當한 成績을 내이고잇다고한다. 或 豐鑛이 發見된다면 産金朝鮮에 一段의 價値를 더할것이다.

河東에 到達하니 때는 午後여 덟時가 지냇다. 約十年前에 水利組合調査를 爲하야 河東을 一次 지나간적이 잇는데 그때와 只今과를 比較하면 實로 天壤의 差가 잇다고 하리만치 河東은 大發展을 遂햇다. 早晩 晉州로부터 河東을 지나서 全南으로 가는 鐵道가 開通된다면 아마 現在의 幾倍以上으로 더 發展할것이다.

河東, 晉州間의 一百二十里는 밤人중이라 沿道의 景致를 볼수가 업섯슴을 大端한 遺憾으로 생각한다.

晉州到着은 午後十時五十分이엇다. (續)(寫眞은 蟾津江과 그右岸의 五峰山一帶)

▲訂正 前回記事中 黃海道長淵郡長尾浦는 九味浦의 錯誤이기 玆에 訂正함. 그他第二回記事中 (一)金鐵奉氏는 金鐵鎬氏의 誤 (二)[illegible]五百圓은 千三百圓의 誤

希臘國內騷然
左翼派의總罷業擴大

【아테네五日發同盟】메타크사스首相의 獨裁制宣布에 激昂한 共産黨員과 左翼勞働組合員等은 益益反政府的 行動을 取하고잇서 總罷業擴大의 勢를 示하고잇다 但 아테네市에서는 新聞發行이 停止되엿스므로 市民은 實相을 알지못하고 市內는 比較的平穩을 保持되고 아직 流血慘事를 보게된 事態는 展開되지 안핫스나 政府는 戒嚴令의 威力을빌어 勞働團體의 反抗者에게 彈壓을 加하는中이다 政府反對派는 베니제로스首相의 獨裁制樹立野望에 對하야 猛烈히 非難하고잇다 一方 希臘北方 살로니가市에서도 總罷業擴大의 兆가 잇서 살로니가飛行場의 從業員의 影子를 보지못하게되엇기때문에 定期旅客飛行機는 多大한 支障을 招來하엿다 또 希臘 유ㅣ고슬라비아兩國間의 電信電話連絡은 斷然遮斷되고 鐵道連絡도 全然不通하게되어 國境은 完全히 閉鎖되엇다 報道되고잇다

希首相、皇帝에게 獨裁宣布를報告

【아텐스五日發同盟】希臘首相메타크사스將軍은 五日 기옥기스二世를 拜謁하고 獨裁宣布에關한 報告書를 提出하엿다 右報告書中에 메타크사스首相은 特히 共産運動의 盛行及 總罷業深化에 依한 流血의 慘을 惹起할念慮가잇다는것을 指摘하야 非常手段을 講究한 理由를 說明하고 다시 議會가 其職能을遂行치못함으로 이를解散하고 議會를 無期休會한 事情을 闡明하엿다

外交團에諒解要望

【아데네五日發同盟】希臘首相메타크사스將軍은 五日午後 首相官邸에 外交團外國記者團을 招致하고 獨裁制施行에至하기까지의 經緯를說明하고 諒解를求하엿다

電力國營問題 贊否論議白熱化

【東京電話同盟】電力國營問題는 現內閣의 政府國策中 가장重要한 政治的 問題로 되고잇는데 이와 同時에 贊否兩論이 各方面에서 主張되는바 이를 要約하면 如左하다

▲贊成論

一、電力은 空氣, 水, 光線等과 가티 이를 營利事業化할것이 아니라는 根本理念에 立脚하야 이를 國營으로 하야 現下內外의 情勢는 이에 依하야 國家統制를 强力하게 하는 同時에 國民生活의 安定에 資하는 同時에 諸國策의 遂行에 必要한 國家事業이다

二、따라서 現在 國內電氣事業은 보담 以上으로 發達되는 需用에 充當하여야 할것이며

三、國營에 依한 大規模의 發送電計劃遂行은 水利의 恒久的開發과 利用의 職能에 依하야 需給調節等으로 코스트를 低下하는 것은 必要하다 따라서 電氣料金의 低下를 招來할것도 明白하다

四、農村開發, 特殊工業公開等 重要政策의 遂行을 爲해서는 如斯한 統制에 依한 業體別 社會政策 産業政策的으로 電力供給을 行하지 안흐면 안된다

▲反對論

電氣는 그 發生에 巨大한 資本이 必要하나 이를 空氣, 水, 光線等과 同視하는 것은 不可하다 또 國策으로 國家社會主義的 統制管理를 採用할것인지 重要産業的 經濟政策을 採用할것인지 議論이 分岐되는 點인데 假令 前者를 可하다 고하나 電氣만을 國營으로하고 他의 産業을 放置하는것은 跛行的이란 非難을 不免한다

二、事業採算을 問題삼지 안는다 하나 事業에 採算이 된다는 것은 合理的으로 經營되어가는 證據로 國營이 되더라도 이 經營을 合理的으로 行하지 안흐면 國民負擔은 오히려 加重되리라

三、國營에 依한 經營組織의 改革은 現行電氣事業法의 改正에 至는 運用에 依하야 實現할수 잇는 性質의 것으로 現在 各其經營에 必要한 他의 政策을 考慮하지 안코 電力問題만으로 充分하다는 것은 認識不足이다

宇垣總督及總監의 訣別人事接受日程

今般勇退한宇垣總督及 今井田政務總監은 方今退京準備及 事務引繼等의準備로 多忙하야 一般人士와의作別人事는 다음과가티 時日을定하야 하기로되엇다

即九日及 十日兩日間 龍山總督官邸에서 午前九時로부터 正午까지 又午後二時부터 午後六時까지에 作別人事를 밧는다한다

人事·集會

▲李應俊氏(陸軍中佐) 京城師團附 京城兵事部勤務被任人事次六日來社
▲小川福太郎氏 三井物産株式會社秘書課長 轉任人事次來社
▲大塚俊雄氏 三井物産株式會社京城支店長 新任人事次來社
▲[illegible]氏 京城府[illegible]町七二의二 (平和堂藥房) 開業人事次來社

夕刊後市況 六日

◆大阪 短期 先記◆
大新 大八〇〇 (一〇高)
鐘新 一五九七〇 (一〇低)
日産 一七九〇〇 (二〇低)
東新 一二五〇〇 (不變)
◆橫濱 生絲 後引◆
新甫 七五九〇 先限 七六八〇
◆藤井 人絹 後引◆
當限 六四四〇 先限 大一九〇

本社主催 白頭山探險團今日登程

本隊의意氣軒昂 萬般準備는整頓!

團長徐椿氏를旗頭로 團員廿七名待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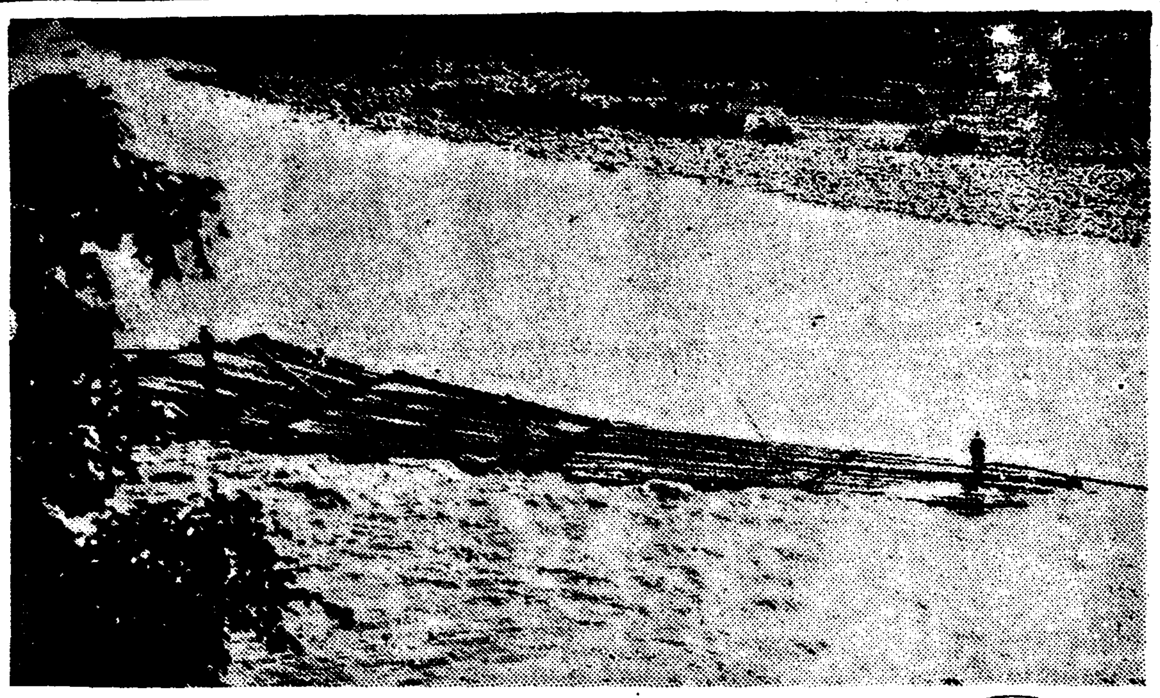
壯觀이를驛頭餞送

민족의성지(聖地) 백두령산을 향할 본사주최의 백두산탐험대의 떠날날도 마츰내 금칠일오후로 당도하엿다 그동안 지리한은 장마날세도 점차개이며 이땅의 전민족이 긔대하는 력사적 이장거의 압날을 축복하는듯, 그옛날 한아버지께서도 두호하심인가 대자연의 조건좃차 순조로워저 가고잇다 먼저는선발대로 본사사회부장 리상호(李相昊)사원 방재윤(方在胤)의 양군이 탐험의 첫출발인 무산(茂山)에 가서 열흘동안, 탐험할만반의준비를 남김업시 하고잇거니와 이에 대탐험의전긔능을발휘할본대의단원 이십륙명은 단장본사주필서춘(徐椿)씨를 긔두로 본사사진반원과 활동사진반을 대동하고 대긔의 형세에서 다시 장쾌한진군의 첫자국을밟게 되는것이다 전단원들은 지방의단원들까지 이미 수일전에 경성에 모히어 장쾌한 이탐험의무사성공을 위하야 마음을가다듬고 오일에는 전원이 본사에 회동하야 각반의 편성까지 본것이니 이날의출발은 마치게되엿다 출발시간은 칠일오후세시오십분 경성역발 라진행(羅津行)의특급렬차로 미리 전단원은 한시반까지에 본사로모히어서 각반원일단 각반장과 단장의점검을 맛고 다시유루업는준비에 주의를 거듭한다음 다수본사원들의전별만세를바드며 본사긔날리는 자동차에분승하고 정거장으로 향할것이다

豐富한科學陣과 活動寫眞班의活動

萬古의神秘『天池』中心의 探險收獲에期待絕對

금번의 백두산탐험이 력사적장거인 소이는 탐험단원이 동물식물등의 발물학자로 우리학계에 일홈잇는분들을위시하야 의학자 또려사가 등산가들의 학도적 정신에넘치는 극히 진집한분들로 탐험은단순한 등산의 스포—츠적 행사가아니고 성지를순례함에 과학의힘을 다기울어 백두령산의전모를 밝히에잇스니 동아대륙의대종인 이령산을것트로는 동식물로부터 지질등까지 안으로는 만고의 신비를감춘천지(天池)의 심연(深淵)에배를 떠우고 가이 헤아릴수업는 수심을 측량할 계획이 잇고、또는 사가의 혜안(慧眼)을 빌어서는 민족발상과 발전의 자최를 살피는 등 력사적 탐험의 계획은 가지가지로 풍부하야 일행의 탐험수확은 십이분 긔대됨이 잇슬것이거니와 또이들바게 만천하독자의 대망의초점이될것은 활동사진반의 모험적인 활약이엇다 일행의출발에서부터 과학반원들의 활약하는 상황은물론 활동사진반의 독특한활약에의한 령산의웅대 장엄한 산악미며 천지심연의그윽한 경관을 낫낫이 스크린을통하여 만천하에 남김업시 제공케할것이다 그리하야 독자들의 긔대는 출발하는 이날부터 더큰것으로 미더진다


—두만강의 맑은물과 떼목—

白頭山探險登山前記

=C=

緘口의豆滿江!

左右勝景一眸에集中

警備關係의最終協議를끗막고

三長에서 本社先發隊 李相昊 發電

오늘은 경비관계의최후타합을 하기위하야 삼장(三長)으로 향하엿다 아츰여섯시에 이러나니 날은흐렷다 비를마즈며 여덜시 무산발(茂山發) 삼장행의 뻐쓰에오르니 얼마아니하여 뻐쓰는 두만강(豆滿江)의 맑은물줄기를 발은편으로 내려다보면서 상쾌하게달린다 이냇물을 건너서가 국경을달리하는 만주땅、이땅과 저땅과의거리는 가깝기가 지호(指呼)의 지점이라기보다도 마주서서 이야기할정도에 불과하다 두만강이라고 강의일홈을부치지만 넓이가 한열간통 될까말까하는 내물 평퐁가리 까거세운 현무암(玄武岩)의 벼랑미를 씻처내리며 백년간 국경의 중임을 지녀내려온 이한줄기의 물、유유히 흐르는경관은 말은망정업스나 먼옛날을 두고라도 지난수십년간의 다사다난、파란중첩한국경 사정을 가슴에기피품고 네나오늘이나 묵묵연한개울을뿐이다。여거저기에는 국경령물의벌부(筏夫)의 노래도한가롭게떠내려가는 뗏목이며 또고리선(高瀨船)、이것도이지방이아니면 볼수업는 풍류이다。뻐쓰는 남촌(南村)이란 동리를 단숨에 지나서 강령(甲嶺)의 준령을 돌파하야 그대로 달린다 노프나 노픈령 마루 턱에서 두만강을 내려다보는 풍경은 실로 장관 이다。왼편 멧수십리의 강줄기가 일모(一眸)에 들어오니 말하자면 산수의 미(美)를 한곳에 모두어 노흔듯한『파노라마』이다。이 근방의두만강은 완곡이 무한해서 이강줄기를따라 올라가는 이편쪽의 홍은 강기슭으로 홍은비탈길로 또는 산옆탈는길은 눈앞이두텃한 뜻한 『카—브』의 련쇄이다、이때문에 만주측의 산이 밝은편에 잇다가도 얼른간에 외편으로 돌아안거도하고 그다음 순간에는아페서 도립로、전허방향을 가릴수가 업다。길가의 요소요소에는 당당한 경관이 뻐쓰를 일일히 정거시키고 검문한다、과연 어수선한 국경풍경이다。약두시간후 뻐쓰는 삼장에 다어다 경찰서를 방문하고 경비에 관하야 상세히 상의를 하고 다시 무산으로 돌아가다 오늘의 첨긔는 청담이 한갈갓자안코 때때로는 약간 빗방울까지 내린다、오려는 비라면 지금쯤 미리와두어도 무방하겟지

鐵路納涼轢死

척서(滌暑)가 나흔 력사(轢死)세 또 두가지—

【1】……당새스날 오후일곱시오십오분쯤되여 서울을 떠나 성진(城津)으로 가든 제오백일호렬차가 함경선(咸鏡線)운포—퇴무(雲浦—退武)사이 이백여키로지점을 달리어가든중 주소성명을 알수업는 로인한명이 치여 죽어잇는것을 발견햇는데 뎨위를 피해서 선로에 가로드러누어 자다가 치여죽은것이고

【2】……가튼날 오후아홉시사십분쯤되여서는 경전남부선(慶全南部線) 반성—이천(班城—耳川)사이를 제이백십일호렬차가 진행하다가 역시선로우에여자한명이드러누어자고잇는것을 발견하고 급정거햇스나 미치지못하고 치여죽고 말엇는데 주소성명을 모다알수업다고

鐵原 道德灘에增水

運轉手二名이溺死

배타고水深재려다가이慘禍

【鐵原支局電話】 륙일오후네시경에철원자동차부(鐵原自動車部)자동차를 서울서 새로 수선하여가지고 그차부 경영자 리덕일(李德一) 박룡달(朴容達)과 운전수 신현긔(申鉉綺) 윤봉손(尹鳳孫) 박순민(朴順民)의 다섯명이라고 철원군 갈마면 도덕란(鐵原郡葛馬面道德灘)에 이르자 이개울이 홍수로인하야 넘처서 건너가지못하겟슴으로 전긔현긔등세명의 운전수가 뱃사공한명과 배를 타고 그물 기피를 재라다가 잘못되여 배가 뒤지피여 네명이 모다 물에 빠젓는데 박순민과 뱃사공은 겨우 헤여나오고 나머지 신현긔 윤봉손의 두명은무참히 익사하고 말엇다

櫻井町에火災

隣接한洋館全燒

륙일아침네시삼십분경시내앵정정(櫻井町)이정목백삼십오번지소세철태랑(小世鐵太郎)의집에서 출화하야 그집과 이웃집 소화(昭和)『아파—트』양관이층을전소하고 동다섯시반경 진화하엿다한다 원인은 그전날밤부터 소세철태랑의집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덴뿌라』를 만드는중 그기름에 불이부터 그와가티 출화한것이라고한다。

손해는 약륙천원가량으로 이 화재로 일시에 거처를 일흔아파—트동숙인 약사십명의 리재민은 그근방 빈터에 피난중이라한다。

保險外交員

書籍窃取타被逮

시내광희정(光熙町)일정목이백구십이번지 모보험회사외교원 전과 이범 박종태(朴鍾泰)는 오일 오후두시경 삼월(三越)백화점 서적부에서 독화사전(獨和辭典)외 약십여원의 책을훔치려다가 본정서원에게 발견되여 취조중이다 그는 서적절도로 시내각백화점으로 도라다니며 동일한 행동을하엿다 한다 피해는 백원가량이라한다

光熙町에棄兒

사흘날밤 열두시쯤되여 시내 광희정(光熙町)이정목 백륙십사번지집뒤에 난지 일년쯤되여보이는 사내를 깨끗한 옷을입혀 보재기에 싸고 옷고름에는 『六月二日時夜九時二歲』라고손 조히쪼바까지 매여 내여버린 긔아사건은 그동안 소관 본정서에서 범인을 엄탐한결과 바로 내여버리젓은집 황윤하(黃允河)라는녀자로 판명되여 동서에서는 각지경찰서에지명수배를하야범인을 수사중이다

이녀자는전긔와가티 아해를내여버리고 떠러지지안는 발길을돌려 어데로인가 종적을 감추어 버린것으로 자살의여려가잇으며 그리면에는 상당히 복잡한사정이 숨어잇는것으로 추측된다

鳳城縣移住同胞

三名慘死

豪雨에後山이崩壞

【安東縣】봉성현석두성(鳳城縣石頭城)사는 조선농민 류상윤(劉尙潤)의처와 딸옥숙(玉淑)과 누이 상옥(尙玉)등 세가족은 지난이십이일밤비에뒤산이문허저서 그집을덥고나가무참히죽어다한다

水色驛에行旅

死亡者

륙일오후 다섯시쯤에 경의선(京義線)수색역(水色驛)대합실 에서 오십세가량되어 보이는 조선인 남자의 행려 상망자가발생하엿는데 소지품은 리용진(李容辰)이라고 바킨명함한장과 현금팔원각수가잇서스며 이보고를 바든 소관서대문 서에서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조사한결과 이자는 시내 당산정(堂山町)일백이십칠번지에 사는 전과사범 안원준(安元俊)으로 동서에절도용의자로 류치되엿다가 지난사일석방되여 룡곡(龍谷)방면으로 향하든중 과식으로 관겨이되여 그가리 정거장에서 죽은것이라고한다

軍官校出身外一名

六日仁川에押來

全北、平南兩警察部에護送

【仁川】 륙일오전사시 상해로부터입항한 평안환(平安丸)으로청년두명을 압래하얏다는대 그중에 전북(全北)출생 오형모(吳亨謨)는 군관학교(軍官學校)출신으로 다년민족운동에 열중하고잇는바 얼마전에 상해일본령사관경찰에체포되야 일건서류와함께 인천으로압래되어 그즉시전북경찰부장(張)형사부장외일명의경관에게 인도되야 맛참내동경찰부로압송되엇스며 또한명은 평양부아청리(平壤府衙廳里)사십이번지 김응수(金應洙)로서 다년상해에거류타가 막참내상해거류민취체법(居留民取締法)위반으로 조선으로추방되여와는대 전하는바에의하면 그는이러타할만한불적증거는업스나 민족○○당거두 유일평(劉一平)등과 련락이잇슨혐의가잇서다하야 방금평양으로 송환하는일방조사하는중이라한다

關係當局을歷訪코

諸懸案解決陳情

永登浦住民代表猛活動

【永登浦】 구분—대경성편입을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잇는 공업도시 영등포의 발전상 무엇보다 긴급하고 중대한 전차와 쓰레기물의처리, 지하도개설, 우편소증설, 경찰구역개정, 공중전, 배수(排水)기타 제문제해결책에 대하야 로량진(鷺梁津)영등포(永登浦)량지유력자삼십여명이 결속궐기하야 려러가지 실행방침을 토의하고 실행위원으로 김려진(金麗鎭)리두용(李斗用)수도상오랑(手島常五郞)황목건지조(荒木健之助)남전채(南田彩)목하영(木下榮)강정옥(姜貞玉)지전장차랑(池田長次郎)등제씨를 선정하엿든바 그실행위원들은 문제가 문제일뿐아니라 책임의 중대성에 감하야일시라도 지체할수업다하야 륙일오전에 우선경긔도지사(京畿道知事)체신국장(遞信局長)경전(京電)당국을 력방하고 열렬한진정을하엿는데 대경성편입에서도 대경성편입상 어느것이나 급속하게 실현지안흐면 안될것을들 알고잇는뿐아니라 도로에 부민이열망하고잇는 이상의 성의로써해결하려고 고려연구중에 잇스며 그중에는 근근구체안을발표하도록 진행중에 잇는것도잇다는 답변잇서서 진정위원들은 저윽히 안심을 하엿스나 단지 경전당국이 전차와 빠쓰임금을 과연어느정도까지 저하할것이가에대하야는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안흠으로 그결정이 자못 주목된다는대 이제 각관계 당국과의 절충교섭한 결과의 대강을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道內務部長談 빠쓰임금저하에 잇서서는 내가 경찰부장시대부터 충분히 고려하든터로 직각컨대 부민 여러분의 희망하는바와가티 지난칠월일일부터 실시하고 잇는 교외선 개정료금과 동일한 정도에서 근일중 실시될것 갓습니다 그리고 보통학교를로향지(永登浦)에 각각 한학교식 증설하는것은 제정상 실현키 곤난한 일이나 한학교만은 증설하도록 고려하여 보겟습니다

山田遞信局長談 우편소의증설과 전화료금의통일문제는 우리들도통감하는바로 벌서부터 계획중이오 체신사무를마튼책임상 아모조록여러부민의뜻에맛도록 노력하려는터인데 무어보다 재원문제인만큼 좋은결과를엇기까지는 발행제로하고 래년도예산에는 요구하야 대경성편입전 공현하도록하겟소

京電當局者談 여러분의의향은 잘알엇습니다 현재 외교료관으로보나 여러가지각도로보아서 전차의연장은당분간 불가능합니다 빠쓰료금도구체적으로 내용을검토할수업스나 목하 감독관청에 수속중임으로 이삼일내로 결정하야 발표하려고합니다 그리고 영등포정에서 당산정(堂山町)까지 빠쓰연장은 확정되여 근일중운전을 개시하겟습니다 그리고 명수대(明水臺)기타의 빠쓰연장은 전차과장과협의하야 실시하도록 노력하겟습니다

十六歲少女가

失戀으로飮毒

겨우열여섯살먹은소녀가 실련의 독배(毒杯)를마시고 자살소동을 이르킨 이야기가잇다=수일전부터 다옥정(茶屋町)이십칠번지 광신려관(廣信旅館)에 류숙하고잇는 인천부 외리(仁川府外里)이백십팔번지 안분윤(安分尹)(十七)은 오일아츰 열한시경 자긔방에서 과산화수소(過酸化水素)를 먹고 자살하려는것을 집안사람들이 곳발견하고 부근지성병원(至誠病院)에 입원가료한결과 곳 회복되엿다한다 그원인을 들으면그는인천(仁川)아리랑 카페—의녀급으로 현재시내 모자동차학교(自動車學校)에재학중인 김재원(金載源)(二○)과서로 련애비슷한 작란을하여오든중 남자의 식어가는 열정을 눈치채인그는 수일전상경하야 전긔 려관에류숙하면서 남자의 마음을 붓잡으려고하엿스나 끗끗내 듯지안음으로 전긔와가튼 엉텅난시위운동을 한것이라고한다

世界올림픽第六日戰績

四百米豫選

【伯林올림픽스타디움六日同盟特派員發】第六日의 陸上競技四百米 第一豫選은 午前十時半(朝鮮時間午後六時半)부터 開始된바 그成績은 다음과갓다

【四百米第一豫選】▲第一組1로바—트(英)四八秒一 2타니르센(瑞典)四八秒六 3로—링(加)四九秒一 ▲第二組1안리—(佛西)四九秒二 2그네니스키—(첵코)四九秒六 3소아(南阿)四九秒九 ▲第三組1부라운(英)四八秒八 2란조이(伊)四九秒三 3맥조넬(獨)五〇秒二 ▲第四組 1스몰웃드(米)四九秒 2라이몬(加)四九秒二 3바라스(匈)四九秒二 6窪田博芳(日)落選 ▲第五組1르뷔(米)四九秒二 2안다손(亞爾然丁)四九秒五 3조이드웨이(匈)四九秒八 4今井榮二(日)落選 ▲六組1뿌라노에라그(獨)四七秒九 2라뿌링(英)四八秒六 3쉬르란드첼(芬)四九秒三 ▲第七組1체리암스(米)四七秒八 2프리츠츠(加)四九秒 3크리스텐슨(丁抹)四九秒三 4相原豊次(日)落選▲八組1스키뵌스키—(佛)四八秒九 2와첨블(瑞典)四九秒 3萬尓쉬(獨)四九秒一

三選手三段跳入選

【伯林올림픽스타디움六日發同盟特派員】午前十時半(朝鮮午後六時半)부터 待望의 三段跳豫選이 開始된바 大島、原田、田島三選手는 모다 豫選標準記錄十四米를 通過하엿다

요트·레—스

【伯林올림픽스타디움五日同盟特派員發】올림픽요트레—스는 五日午前十時半(朝鮮時間五日午後六時半)부라키—르灣에서 行한바 成績은 다음과갓다

▲스타—級第二回레—스 1瑞典(十二點)二時間一分五秒 2和蘭 3英國 4獨逸 5米國 6土耳其7伊太利8日本9白耳義

◇寫眞은키—르灣의 요트코—스

鐵道野球九日開始

鐵道局各鐵道事務所、工場對抗野球大會는 來九日부터 三日間龍山鐵道球場에서 다음과가튼 對陣으로 擧行될터이라한다

A 大田事務所對 京城工場 (九日前十時半)

B 京城事務所對 平壤事務所(後一時)

C 釜山事務所對 元山事務所(後四時)

A의勝者對 B의勝者 (十日後一時)

C의勝者對 城津事務所 (同後四時)

▲決勝戰 (十一日午後二時)

大東商業籠球

群山에遠征

大東商業學校籠球部에서는 夏期休暇를 利用하야 合宿練習을하고잇든바 六日로서 合宿을마치고群山籠球俱樂部의 招聘을바더 今七日午後十時五十分 京城驛發列車로 湖南地方으로 遠征하게되엿는데 對陣及一行의멤버는 다음과갓다

▲八月八日對群山靑年會軍 同日對群山留學生軍

▲八月九日對群山留學生軍

▲八月十日對群山籠球俱樂部軍

(途中木浦、全州等地에 戰할豫定)

▲一行陣容=部長文承郁 코—취李文鎬 主將金昌植 選手金昌植、具本恒、王玉伊、申甲英 尹大坊、金景泰、尹經爽、田東鎭、金漢明、尹興吉

女子庭球代表

伊勢서奮戰惜敗

지난四日부터 三重縣宇治山田市에서열린 伊勢神宮庭球大會에出場한 京城女高普의 韓貞順、林惠玉組는 이날四回戰에서 岐阜縣의 日紡과對戰하야 四對二로惜敗하엿고 同德女高는 三重女高에게 京城女高普 金鍾沃、李順卿組는 東紡에게 京城二高女는 愛知淑德에게 海州高女는 神戶二高女에게 第二回戰에서 모다 齊戰도 헛되이敗退하엿다 四日에出場校數는 一百校에達하엿다

硬式庭球戰

朝鮮庭球聯盟에서는 日本學生硬式庭球界의强豪三浦、早大主將、中野(法大)兩選手를 마지하야 八日午後二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對抗戰을 行할터이라고한다

▲單式戰=三浦…河村、中野…保田

▲複式戰(三浦 中野)…(保田 猪野)

今日의올림픽

◇第七日 金曜

▲陸上競技 (올림픽스타디움)

十種百米 (後六後)

世 七八〇點 모리스(米)

올 八四六二點 바—쉬(米) 二三五一點(舊採點)

優 七八八〇點 모리스(米) 七六〇一點 크라—크(米) 六六四七點 슈—렉(獨)

十種走幅跳(前十一時半)

四百米準決勝(後十一時)

五千米決勝(後十一時一五分)

世 14分17秒 레히지넨(芬)

올 14分30秒 同人

優 14分30秒8 헤쫼트(芬)

候 14分30秒8 살미넨(芬) 14分40秒8 마—키(芬)

十種走高跳(前零時)

四百米決勝(前一時半)

世 46秒1 윌리암(米)

올 46秒2 카—(米)

優 46秒1 윌리암(米) 46秒3 루—발(米)

候 47秒3 쏘아—(南阿) 47秒8 부라운(英)

十種四百米(前一時四五分)

▲레스링 (獨逸舘)

그레고로—맨準決勝(後六時)

同 (午前三時)

▲하키— (하키—場)

豫選 (前零時半)

日本對匈牙利

▲籠球(伯林球場)

第二次試合(前一時)

▲요트(킬港)(前六時半)

▲劍術(前零時)體育舘 ▲핸드뽈(前零時)伯林球場 ▲뽀로(前零時)뽀로競技場▲카누—(前零時半) 그류나▲自轉車競走(前二時) 自轉車競走場

림질근치약

고젠—루의약가

普及藥 一圓九十錢

二五瓦入(十七日量)三圓八十錢

五〇瓦入(卅五日量)七圓

부인용 성인용

자택치료 무대진정

겐고—루

부라온銀 發明創製 前東京吉原遊廓 吉原病院長 佐藤先生

東京市芝區新橋十三 日東製藥合名會社 振替東京二一九 京城、新井藥房 釜山 大黒藥房

약한방울로 단二分間에 효과가낫타나는 약이니 림상치료에는 물론이요 자택에서도 단시일안에 손쉽게근치되는약입니다

『겐고—루』는 재래의 치료제의 결점과 약점이 모도 보충되여잇슴으로 어느 약에서도 볼수업는 강력한 살균력(殺菌力)을 가지고 잇고 심달성(深達性)을 가지고 잇스며 직접 환부에 작용하는 약이므로 환부에잇는 병균을 모도죽일뿐아니라 림질균으로 말미아마 점점으로 생겨잇는 홍집과 진물는곳을 곳 압흘게하므로 단시일에 근치되는 약입니다 더구나 자택에서도 간편히 사용하여서 아무염려업시 전문가의 치료와 가튼 치료를 할수잇스며 떼구니 한두번 치료에 솟어든 고름이 쏘다저나오고 오줌이 차차 맑거지며 공물도 씻어낸듯이 개이여 가는데에는 떠욱 탄복 아니할수업습니다。

도한겐고—루를 써서 치료하시면 곳 아실줄 밋사오나 그얼마나 속히 병환근에 작용하는가 함은 치료시작한지 얼마아니되야 아무리 오래된 림질이라도 처음전염된때와 가튼 급성증세로 병세를 변하게하는 것으로도 더욱확실이 아실줄밋습니다。

남편에게림질기운이잇으면반드시부인께 전염됩니다

그러므로 두분가티 치료하시와 주십시오

남편께서는겐고—루로곳치시며부인께서는근래새로발명된부인병신약와세도환(와세도環)로곳치시면곳근치됩니다 『와세도環』는일본각지의帝國大學病院、赤十字病院에서사용하야만흔환자를구원하고잇는약으로써처음으로병원전문약을민간에투여하는약인치약가도 실비이오니(十二日分—一圓二十錢、三十六日分—三圓四十錢)이온대병세를조선국문으로자세히쓰시고통지하시면최선의방법을알리워드리며조선국문으로조선가정위생보감女性의新生理學을 거저드리오며『와세도環』에한하야송료三十錢선송하시면 금이환으로도송약해드리오니부부협력하야속히근치시켜주십시오

내복약(內服藥)으로는 근치(根治)가못된다

百名中九十八名까지는內服藥을복용하여서 낫은줄알엇든것이 기회만잇으면 재발되야고통을밧는慢性환자이엿다

우리병원에오는 림질환자중에대부분이 만성고질이된 중세임으로 그원인을 물으즉—대개 먹기가편함으로 내복약(內服藥)을써서 치료하엿스나 아직것 낫지를안는다고 대답합니다。 또한어느분은 밤변이상이나약을먹엇드니 거진낫는듯하나 요새 몸이허약해진까닭인지 떠욱심하다고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내복약으로는 림질이 절대로근치가 못된다』는것을 하여도 고지듯지안는분이 만흠으로 림질에대한 병리를 알기쉽게설명하면 비로소 깨닷는분이 만흠으로 여러분께간단히 말삼드리고자하오니 만흔참고와 도움이 되울줄로 밋습니다。

즉림균은 뇨도를싸고잇는 해면체(海綿體)라는 수만혼적은 주머니가모혀잇는 그사이에 뇨도측관(尿道側管)이라는 가는관이 잇는데 그곳에림균이 파고들어가서 발병됨으로 아모리 퍼붓듯이약을먹어도 그가리 속깁히 파뭇친 림균이 죽을리가업스며 또한재래의 局所藥(그것이 綫劑의 좌용일지라도)으로도 그곳까지약기운이 다다르지못함으로 근치가 못되여는것입니다。

또한 뇨도조직십부에 뿌리백힌림균을 엇지위장을 통하야오줌에섞겨서 그환부에일으는 내복약으로 그림균이죽으며 홍집이다스리질 이치가잇겟습니까。

그리하야 세계각국의 전문의학자들은 엇더케하여야 그와가티십에뿌리백힌 림균을 죽일수잇슬가?하는 연구에 고심을거듭하든중 우리동양에서 세계에자랑케된 림질근치약이 발명되여서 전문의와 환자께一大활성으로환다

世界醫學界 驚異

세계의학계의경이

부라온銀 발명

深行性銀의發明

동양서 제일유명한유학 동경길원유곽안에잇는 경시청 병원장으로게신 좌등영선선생이 수십만의림질환자를 매일진찰치료하시든중 『새롱온화실』을 발명하시든중 고심달성 이굿세인 아무부작용 업는銀劑 라아만된다』는 진리 맛헤서 고심 연구를 거듭하시와 멸상실험에 확신을어든 근치약이 『부라온銀겐고—루』입니다。

림질을 자택에서도 간단히 곳칠수잇다

東京日比谷病院長 醫學博士 深瀨周一

E—129

京城版

少年溺死

부외득도면 중죽리(…) 馬山府中谷里 오백삼번지의삼 유진화(…化)의맛아들 영준(英俊)(九)이란소년은 닷새날 오후한시쯤되어 집근처 내스가에서 놀다가 그만빠저죽엇는데시체는곳건저냇다

赤痢의 退治는 消毒이 첫條件

京城府에서 一般市民에 指示한 特히 留意할 諸方法

…가 대자동으로 일반시민에게 말로 환자를 내게한것은 우리의 긔억에 아즉새로운바로서 금년에는 위생당국에서 미리사전으로 장질부사의 방역진(防疫陣)을 느린 효과가잇서 장질부사는 만치안흐나 그대신 적리(赤痢)가 만히발생하야 일월일부터 작일까지 이백사십명이란는 발생수를 내게되엿다 여긔에 경성부위생과(府衛生課)에서는 예방책으로 "소독방법의실제"라는삐라를 각방면에나누어주고잇는데 이제참고될내용을소개하면 이러하다

◀간호하는사람, 환자잇는집사람 적리균(赤痢菌)을가지고 잇는사람은 위선손을 손톱사이까지 삭파―세트르의크레조―르비누로 씻고 환자의 오물(汚物)을 만젓슬때나 방을치울때는 특히 충분히실행할일

◀옷 자리 침구등은 삼파―세트르「크레조―르」비누를 에한두시간 붓처다가 빨거나혹은 경성부위생과 방역사무소(防疫事務所 電光二六四一)에 의뢰하야 증긔소독또는「포르마린」소독을할일

◀식긔는 충분히 끄려쓰라

◀오줌 긔타의 배설물(排泄物)은 삼파―세트 석탄산수(石炭酸水)또는 삭파―세트르「크레조―르」비누혹은 백배아이젤을 섞어서 버릴일

◀방안 장판 가구등은 삭파―세트르크레조―르비누를 무친걸네로 닥글일

◀부억, 변소, 쓰레기통, 세면소에는 백배비이조―르「크레조―르」도 때때로 뿌려두면 소독도되고 파리도 안생긴다

◀우물물을 함부로마시지말일

◀채소는 가장위험한것이니 깨끗한물로 충분히 씻서야 한다 그리고「카르키」소독방법을 쓰면 더욱안전하다

醉中에 行悖

시내 종로오정목사십칠번지 황치연(黃致淵)(三一)이란자는 엇그저녁여덟시반쯤되여 술이취하야 효제정(孝悌町)백구십이번지 앞길로가다가 그동리백륙십사번지 방긔남(方基南)을맛나 무단폭행하고 구타를하는등 란폭한행동을하다가 결국 톡톡장신세를지고잇다는데 이자는 지난오월이십이일에도 효제정백구십사번지 변종수(邊鍾洙)에게 폭행하야두주일의 중상을입힌 상습폭행자라고한다

松都光武館의 冒暑練習盛況

六十餘名이 參加로猛練習

昇段進級、賞品授與

【開城】 개성송도광무관(松都光武館)에서는 례년과가티 지난칠월이십일부터 팔월삼일까지십오일간을두고 매일오후 세시부터다섯시까지 사범김홍식(金弘植)씨의 규률잇는 지휘아래 하긔모서유도연습(夏期冒暑柔道練習)을개최한바륙십여명의 열렬청년들이 홍백전을 개최하야기술을 연마하엿다 연습기간중 출석등 여러가지점을 참작하야 승단진급(昇段進級)케하는동시 상품수여식이 잇섯다는데 지급한 그들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二段=金富吉、閔完植、金點孫
一級=金東俊
二級=金性俊
三級=姜應鉉、姜永寶、金泳昊
三級乙=張成龍、孫啓永
四級=劉東旭、潘玉均、金海晚、林允喆
四級乙=孔龍浩、李基煥
五級=梁元亨、朴子慶、李明煥、申甲均、朴富啟
五級乙=元淸寬、金老榮、尹永洙、金昌亨
六級=安榮榮、李宗和、李義鎬、朴光鎬、邊德鉉、吳相根、金富炯、尹興洙、韓明洙、金璐永、安謙
浩、李大福李武毅、朴提上、孫三來、崔廣源、禹老亨、金兌振、林奎喆、鄭寅基
少年部 一級 金光一、安盛燮、二級 金海龍、馬鍾武
高點 授賞者 朴富瑢、金泳昊、李基煥、金光一、孔龍洗、李順禧、孫三來

賣春婦의 末路!

廢人되자街頭에逐出

仁川에入港한三女性의哀話

【仁川】 국제도시 상해(上海)의 마굴로 끌리여다니며 주린이리떼와가티 달녀드는 악마들상대로 웃음을팔고잇든것이 오날의 현상을가게되여 인천에입항한 평안환(平安丸)에는 초라한채림으로 하야 맛참내 가진화류병(花柳病)과「몰핀」중독으로 폐인이되매 그는 맛참내 전기세녀자를 상해가두로 축출하야 바리엿슴으로 그들은 할수업시 가두에서 예일을추억하며 그날그날의 생활을계속하든끄테 령사관으로부터 보호송환을밧게되얏스나 본적지에는 친척조차잇는지 몰으는 가련한 현상이라 맛참내할수업서 당분인천서에서 보호하는일방 그대책을강구중이라한다 상세하기 이롭도모를 남자의피임에빠저 일시출가하엿든것이맛참내 청도(靑島)대련(大連)향항(香港)…의 삼명이잇섯는데 그들의말하는바에 의하면 여잇다 … 중죽까지되의 사상은 참백하다못하야 …

商品配置不充分

閉店者만續出!

松峴里의日用品市場

【仁川】 북촌일대의 발전을구실로 인천부윤의대영단으로써 팔만부민주시하에 개장한 동시장은 나날히 번창하여야 할것이 돌히혀 근일에일으러 나날히쇠퇴하야 폐점만격증하고잇다 이제폐점한상인과 일반여론을 종합하야보건대 부당국으로부터는 일반상인의 실사정을 참작치아니하고 탁상(卓上)리론으로 매품을 지정하야바림으로 그성적이 조치아늘뿐아니라 전연경비조차 쓰지못하는형편이라 이에할수업시 폐점을하지아니하고는 견대낼수업는형편이다 지금까지에사실로 미루워보드라도 매번창의과영을도하든 시장에대하야 당국으로 부터도 좀더 성의잇는활약으로 일반에대한 실사정을참작하야 그대책을 강구치아니하면 도리혀부민의 불평만사게되리라하야 발서부터 적지안흔여론이잇다한다

山菜로延命타가 四家族中毒重態

세명은구해내고한명은위독

朱安驛前의慘劇

【朱安】 춘궁(春窮)을 저나며 원수가튼 장마철을 당하야 먹을것업시 산버섯으로 끼니를이어가다가 일가족사명이 중독되야 사경에 빠젓다고 듯기에도참혹한 이야기―부천군 다주면사충리(富川郡多朱面士忠里)오백이십오번지 정유봉(鄭允鳳)(三三)한국식인 보리조차업서 그날그날의생계에 곤궁하야 잇든 판에 지난 오일 오후 두시경 산(文鶴山)에 올라가 일홈모를 버섯을따다가 주리고잇는 어린자녀삼명과함께 "지지며"볶아먹어 저녁으로먹은후 맛참내고민하고잇든것을 그이웃김선홍(金善用)씨가발견하고 구원하려하얏스나 원체인천과거리가 십리가량떠러저잇는곳이라 의료기관이 불충분하야 인천암정병원(岩井病院)암정(岩井)박사의호의로 즉시현장에달려가서 시료를한결과 맛참내삼명은구원되엿스나 그중한명은 아즉도 혼수상태에잇서 가장위험한형편에잇다 특히그들 구조에차비를부담한 김선용씨와 무료시약한 암정박사에 대하야 주민들은 고마운정을것잡지못하고잇다

密會中의夫婦 不浪輩에逢變

여름밤에 오래간만에 맛난 부부가『랑데브』를 하다가 봉변당한 이야기―경긔도 리천군(京畿道利川郡) 강모(姜某)(二七)는 수일전상경하야 현저서사헌정(西四軒町)산중모(山中某)의 집에서 어멈노릇을하고잇든 자긔처 김모(金某)(二三)와 오일밤열시쯤되여 장충단공원(奬忠壇公園)뒷산에서 만나 오래떨히엿든 애정을 주고밧고하든중 돌연히 절문청년두사람이 나타나서그가지고잇든 우산을빼앗고 정모를란다하며 너희들은 불미한행동을하엿스니 본서까지가자고 희롱하면서 녀자를끌라가라든 흉행을이 발견하고곳 고발하야 본정서에 인치하야취조중이다 가해자는경긔도광주군(廣州郡)북방화(北芳化)…지귀일(池貴日)(二一)외 한사람이라한다 그런데 근일장충단공원은 풍기문란하고 밤에는 …이와가튼일이생긴다 … 그래서요 출중하는 단연그들을 엄중처케하리라고 한다 도한 범중에 공원지대로 출입하는 꾀상한남녀도 엄중단속하는중이다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利益만코본業副業으로男女小兒를勿論하고自宅에서休、업수잇는職業 年中無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急募 大阪天王寺區寺田町 圖藥本舖

味の素

春夏秋冬
세때食事에
아지노모도를
한때라도
잊지못할
時代입니다

味아지의노素모도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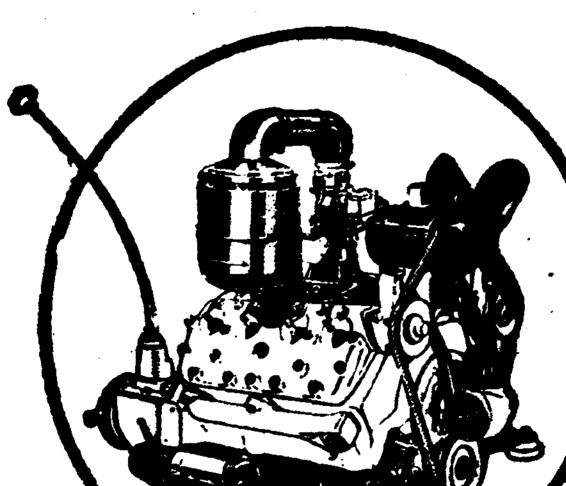
8―ホ

어린애들이 자다가感氣에걸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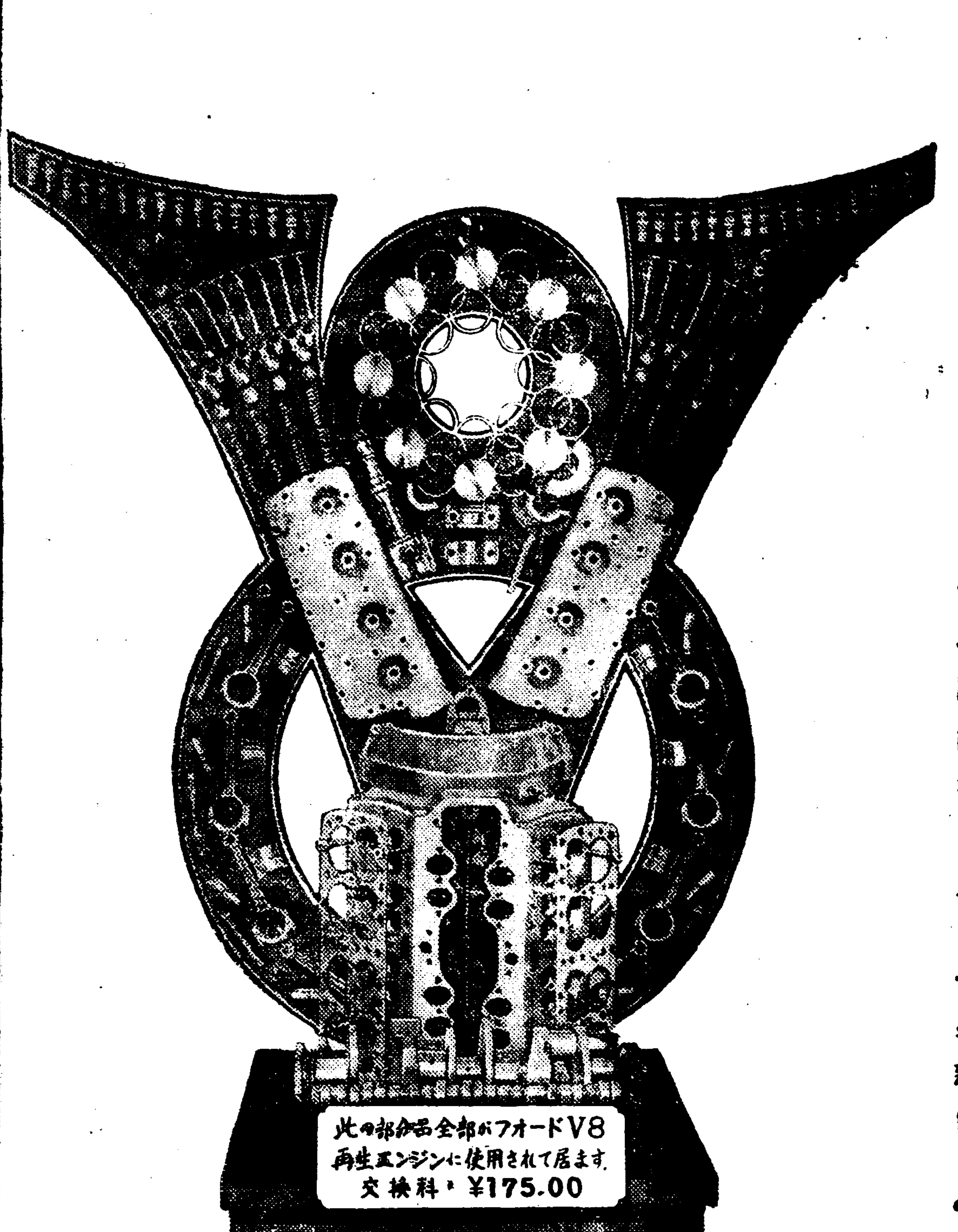
オイン

朝鮮日報社 釜山支局 長電話釜山二八九七番

フォード工場で再生したV-8エンジン



新交換料 ¥175.00



포―도V―8의所有者는現在오바―홀을要하는各位의中古엔진과포―드工場에서再生한新品同樣의엔진을겨우¥175.00에 交換할수잇습니다。

交換料가이러케低廉한것은最近日本포드自動車會社에부친가장新新한機械設備로서만드는까닭이지만此等機械設備中에는아링及硏磨機엔진檢査機其他從來의때아본을本工場만使用하고잇든諸種의各機械器具가包含되여잇습니다。

엔진은各各試驗臺에부처서運轉하면서오일뿜뿌의압력을비롯하야엔진의壓縮力뻘푸의調時其他各種의調整 規格의 適應한가어떤가를試驗합니다이가티低廉한交換料인故로 所有하신V―8엔진을 普通方法으로오바―홀하야너무오래동안使用하야어려운헌部分品을再次使用하는것은經濟上得策이안입니다

헐고磨滅된部分品을使用하는것은不經濟입니다포―도工場에서再生한엔진은그新部分品과相關하야新엔진과同樣으로經濟的性能을確保할뿐만아니라그背位에는포―드自動車會社의保證을加하야써―비스上便益이잇습니다

이엔진交換에關하야最近포―도特約販賣店이나或은잘아시는깨레지에問議하여주십시요

Ford

フォード特約販賣店

平南自動車商會 平壤府濱町五	楠本商店 京城府若草町大通	朝鮮鐵道株式會社自動車販賣所 釜山府榮町一ノ四一
イトウ商會 淸津府彌生町六	丸大商會 全州府本町一丁目	咸鏡モーター商會 咸興府朝日町一三六

八月七日封切 每日三回(午前十一時半、午後一時半、六時半) 六日부터九日까지는 每夜十時半부터一時間동안 深夜興行 各等十錢에公開 上映 오림픽의鐘은부른다 二卷、大每國際뉴―스 一卷、米國十大學校歌集 二卷、漫畵 二卷

納涼映畵第二週 階上(一圓五十錢) 階下(三十錢)
◆獨逸우화超特作映畵 꾸스타브·우스키 監督 새벽의國境(あかつき)
한스알베―스·케드 본나 主演 獨逸이나은세계최고의 甲車武裝市街하부빈 機關銃과裝甲車
◆丁抹파라지움超特作記錄映畵 푸리―드릿히、딸스하이博士監督 파로의新婦마지

◆그리랜드北緯十五度北海岸에二年有餘滯在하야完成한카메라記錄篇 日活特作 愛の二重奏(次週封切) 나의行狀記熱情奏鳴曲、(豫告)어떤女子의一生、情熱의품비、片道鑑札

映畵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古今獨步的三大超特選名畵封切 本日부터特別大興行週間 코럼비아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알바―트로젤氏大作品! 로랫드때―그래사―그著名少說映畵化! 惡魔島脫出 노―마포―스타 후로랜스라이스 主演 빅조―리라―

廿世紀폭스社超特作日本版 루이스킹그氏監督作品! 미―라의殺人 와나오란드·챠―리챤 氏主演 大都映畵特作時代劇 中島寶三監督 빗나는 百萬石加賀の若殿 近衛十四郞 東龍子 主演

貫鐵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靑春座公演第五週 八月一日부터晝夜 (晝一時十五分、夜七時十分) 朴珍脚色 朴月灘作 一、『名妓黃眞伊』四幕五場 (一名黃眞伊와벽계수) 松都의三絶인 徐花潭의道學과 朴淵의名瀑과 黃眞의美色이라한다

悲劇『愛慾』二幕 李雲芳作 黃眞은絕世의傑物로妖艶한몸과 로밉은不幸하게살아온黃眞이 …

喜劇『新舊衝突』二場 花山學人作

西大門町 電光3二二三番 東洋劇場

月經催進劑 アゴメンシン

月經過少·月經困難·月經不順·子宮發育不全·代償性月經·乳汁分泌障碍·月經性皮膚疾患·面皰等에適用됨(內服用錠劑及注射液)

文獻 大阪市東區道修町三和ビル內瑞西バーゼル化學工業會社日本學術部より 進呈

日本總代理店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特約店小西新兵衛·鳥居三共

10―28

● 强力 男性ホルモン アンドロスチン

産業

이번의豪雨는 代作에는支障

畓面充水로蕎麥、稗는播種不能

排水後菜蔬植栽計畫

雪上加霜의農家

今年은 旱春以來와 旱魃로 因하야 諸種作物에被害가 莫大한바特히 朝鮮農作의大宗인 稻作에잇서서는 用水가 不足하야 移秧을못하고 목이게되엿든 面積이 六萬五千餘町步에 達하야 農家에 打擊이 莫大하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當局에서는 이에對하야 代作을 奬勵키로 方針을 決定하야 이미 各道農會를 通하야 前記未移秧地의 代作種子 蕎麥、稗等의 共同購入斡旋까지 하고잇는터인데 今般 全朝鮮에 내린 豪雨로 因하야 未移秧畓 六萬五千町步中 五萬餘町步의 畓面에는 때아닌물이 차서 代作조차 못하게되야 그廣汎한面積中 一萬町步밧게는 代作을못하야 農家에서는 雪上加霜으로 接續하는天災에 極度로 失望하고잇다는데 이에對하야總督府農林局에서는 第二段의 代作對策으로 此等 畓面에 排水를 行하고 播種期가좀 遲延이 되어도 無妨한菜蔬等의 代作을 奬勵할 計畫이라한다

鰮은大凶이나 雜魚는大豐

七月元山水揚高激增

【元山】元山의 宗主魚라고도할 靑魚와 鰮魚等이 近般來凶漁로 因하야 一般當業者에게 大打擊을 주고잇는데 그反面에 一般雜魚가 好成績을 보이어 七月中 元山漁業組合總水揚高는 六萬六千百五十一圓九十九錢으로서 前年同期에 比하여 三萬一千二十七圓九十八錢의 大激增을 提示하고잇서 當業組合에서는 激增一路를 밟고잇는 漁況에 喜色滿滿하다고한다

堤川農家를網羅

菜蔬出荷組合組織

寧越電氣會社의 設立中央線敷設等 大發展途上에잇는 堤川에 忠北道當局에서는 今年의新規事業으로 農事試驗場分場設置、農業補習學校를設置하고 冷害가만흔 同地方의 農作을調査研究하야 菜蔬栽培等을 奬勵하기로되엿는바 去七月末에 堤川郡農會에서는 寧越電氣會社와 菜蔬類의 供給契約을 締結하고 一般農家를 網羅하야 野菜出荷組合을 組織하고 또同農會에서는 野菜專任技術員을設置하야 大大的으로 栽培奬勵를 하게되엿다

머리숙은조

家內工産額大增

總額近一億六千七百十二萬圓

食料品工業이斷然優勢

【總督府調査】昭和九年中의 朝鮮家內工業生産額은 一億六千七百十二萬九千 六百六十三圓으로 明治四十四年의 産額에 比하면 一億三千五百餘萬圓增이고 最近數年來의 家內工産額에 比하면 昭和七年보다 三千七百餘萬圓、昭和八年보다 一千九百餘萬圓의 增加를보이고잇다 業種別로 生産額을보면 食料品工業이 斷然優勢하여 七千六百七十四萬七千四百三圓으로 總額의 四割六分에 該當하야 約半額에 達하다 다음은 紡績工業의 二千五百八十一萬五千九百三十一圓이 總額의 一割五分 化學工業의 二千百四十五萬 六千九百 五十四圓이 總額의 一割三分 木製品工業의 四百五十三萬八千二百九圓이 總額의 二分 金屬工業三百八十一萬三千三百四圓이 總額의 二分 機械器具工業 二百七十九萬二千五百四十四圓이 總額의 一分 窯業二百三十九萬九千二百圓이總額의 一分을 各히 占하고잇다 道別로보면 慶南의二千二百五十八萬餘圓을最高로 다음이 全南의二千百七萬圓 京畿의二千百三萬圓 慶北의一千九百五十萬圓 平南의 一千三百三十六萬圓 江原道의 一千二百五十二萬圓의 順序로最底가 忠北의 四百三十五萬餘圓 咸南의 六百八十五萬餘圓이다

平北自作農創定

地價高로頓挫狀態

平北道農務課에서는 旣定의計畫에 基하야 今年度의 自作農設定은 十二月一日 新設百二十五戶에 對하야 八萬二千五百圓을 貸付할 豫定으로 目下 準備를하고잇는데 最近農村景氣의 上昇에 伴하야 土地의 急騰으로말미아마 一頓挫를 招來하게되엿다

畜牛增殖의 厖大한計畫

明年度부터實施方針

總督府農林局에서는 朝鮮의 農業經營의 合理化를 促進키 爲하야 有畜農業을 積極的으로 奬勵하기로되야 昭和十二年度부터 二十個年을 期하야 畜牛增殖計畫을 實施하려고 그經費는 昨年度豫算에 要求하기로 되엇다 이제 그增殖計畫의 內容을보면 右二十個年間에 現在의 畜牛六十七萬頭를 二百五十石頭로 增殖하는데 農林局에서는 그指導次로 技師一名 그 外技術員을 增置하며 그 增殖方法으로는 繁殖母胎인 牝牛의 增殖을 圖하기 爲하야 牡牛數를 漸減하고 牝牛數를 漸增식히며 牝牛의受胎率生産率을 向上하는一方 移出牛에는 될수잇는대로去勢한牡牛를 充當하는 同時에屠殺牛도 牡牛를 하가로할 計畫이라한다

家兎飼養

管理上注意要項

飼養은 春來種이나 베키슴種이나 앙고라種이나 同樣的으로一括하야 가장 注意를 要하는點을 要約하야 보기로한다

一、箱은 石油箱보다 좀큰것이 조타 크면 클수록조타 底는 [illegible] 그대로로 조타 幾分기우려처노흐면 排尿의 不便은업다 이要領으로 싸어노으면된다 發情한 牝는 一箱一頭主義가아니면 繁殖率이조치못하다 仔兎를 離乳식힌後 發情하기까지 (生後四、五個月)은 큰箱에 雜居식히는便이조타 虛弱한 仔兎는 別箱에 副業的으로 少數를 너어 飼育하는便이조타 一箱四頭까저는 食器一個、四頭以上은二個、[illegible] 食器를 [illegible] 給與하야 一日 [illegible] 給與가 [illegible] 過食치 못하야 [illegible]

一、過食치안토록 恒常 注意할것

生後 一個月頃은 離乳치말것 生後三個月까지는一日에四、五回가량給與하고每食間一時間乃至二時間가량은 먹으려하여도 食物이 箱中에업는 程度의量을與한다。生後五個月以上이되면 朝夕二回로하고每食間二時間乃至三時間가량은 食物이箱中에업는程度의 量을 與한다 이것이가장 理想的이다 그러나 菜는 恒常새롭고 乾燥한것을箱中에 數葉食用으로 三日에 一回與하도록한다

一、腐敗物은 絶對로 與치안을것。

腐敗物이 조치못함은 勿論이나 實際는 注意하지안어 失敗하는 일이만타 兎는夏季中 特히霖雨期에 死亡하기쉬운것은 霖雨期의 腐敗物이 影響하기때문이다。[illegible] 곳中部分은 [illegible] 腐敗한다 또 腐敗한 野菜類의 腐敗物을 不注意하야 與하는 일도잇는데 그結果는 [illegible] 大部分의 原因은 [illegible]이다 이는 每時의 食物을 조곰만注意하면 失敗를 防止할수잇다

一、排除를 게을리말것

잘 飼育하지 못하는사람을 보면 大槪 放棄하야 [illegible] 飼育하야 排除等은 一向하지 아니하고 箱中을 보면 食物과 糞 그他의것이 쌔워아래便은 뭘적골적하야 그데기가 끄리는 일이잇는데 이러한 飼育으로는 잘죽는것도 이상한일이아니다

箱中을 淸潔히 排除하야 줄것이다 적어도 四、五日에 一回를 充分히 排除하고 [illegible] 乾燥한 [illegible] 마다 [illegible] 가려주도록 [illegible] 또 그[illegible] 兎의保健上 [illegible] 一個月에二回쯤은 [illegible] 日光消毒하야 乾燥하도록하면조타

一、[illegible] 充分히 [illegible] 할것 [illegible] 一分도 [illegible] 구든가 연하가 [illegible] 하면조타

一、糞이 [illegible]

一、연한듯하고 [illegible] 健康한便

一、[illegible] 연하고 [illegible] 第一步에 드러가지 못하면 [illegible]

五、[illegible] 注意

第二[illegible] 第三의[illegible] 失敗한다。第四의[illegible] 第五에 [illegible] 第五의[illegible] 그런데第三、第四의[illegible] 比較的 [illegible] 分이적은것을 [illegible] 小蔘과大蔘을 [illegible] 相當히 乾燥하야 [illegible] 이方法으로 二、三日 [illegible]

錦山人蔘發價漸高

朝鮮의 特有名産이요 全北의 特産인 錦山人蔘은 叢蔘으로 옛날부터 그名聲이 朝鮮內各地는 勿論 海外까지 傳播되고잇스며 年生産額은 錦山地方經濟를 支配하고잇는바인데 從來 此耕種의 改良、生産增加、製品의改善 販路擴張等 何等의 助長奬勵的 施設이 無하고 겨우 當地에 人蔘耕作組合이라는 民間團體가 有하얏스나 有名無實로 當業者의 自由에 放任하얏기때문에 錦山人蔘은 漸次 衰退하고잇다 며욱히 奸商輩가 此衰運에 乘하야 他地方産蔘을 購入하야 錦山人蔘과 如히 假裝하야 各地에 錦山人蔘으로 詐欺販賣하얏슴으로 錦蔘의 信用이 漸漸失墜함에 至하자 比로소 此의 統制機關의 必要를 痛感하고 爾來 幾多의 艱難과 辛苦를 격거온結果 昭和十年六月부터 此를 法令에 依한 同業組合을 設立케하고 專히 生産增加製品의 改良及檢査等에 全力을다하는一方 本道特産品으로 指定되야 販賣의 統制를 圖하는同時에 朝鮮內各地는 勿論 海外까지 宣傳에 努力하야 各地에 特約店을 設置하는等 販路擴張에 努力한 結果 成績이 顯著하야 至今에는 一般이 錦山人蔘의 眞價를 認識함에 至하야 漸次 需要가 增加하야 昭和十年度 販賣高가 勿論二十萬圓을 突破하얏다는데 今後一層 此의 生産增加를 圖코자 各般計畫을 樹立하고 着着實施에 專心努力中이라고한다

重要肥料統制法

朝鮮에도適用

九月로實施가遲延되엇스나

總督府施行規則作成

重要肥料業統制法은 八月에서 實施되는 新肥料年度와 共히 施行코저 農林省에서는 施行令과 施行規則을 立案完成하고 이것을 商工省에 回付하야 待機中이엇는데 여러가지 事情으로實施가 八月末乃至九月上旬까지遷延케되엇다。그런데 同法은 朝鮮에 適用與否는 危惧되엇스나 小川商相의 議會서의 言明대로 施行키로되어 總督府에서는 別個의 施行規則을 作成中이다

咸北道의畜産額

躍進咸北의畜産은 緬羊의 登場으로 因하야 一層活氣를 呈하야 明年度부터는 北朝鮮特殊事情에 基한 畜産奬勵地區로서 各種計劃이 實現되고잇는데 이제 咸北의 畜産物産額을보면 昭和十年中 總額은 四百二十三萬二千八百餘圓으로서 九年中의三百七十八萬 一千圓에 比較하면 四十五萬餘圓이 增加되엇다

畜産物産額 品名	數量	價額
牛	[illegible]	[illegible]
牛皮	[illegible]	[illegible]
牛肉	[illegible]	[illegible]
牛脂	[illegible]	[illegible]
牛骨	[illegible]	[illegible]
牛乳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馬	[illegible]	[illegible]
豚	[illegible]	[illegible]
豚肉	[illegible]	[illegible]
豚脂	[illegible]	[illegible]
豚毛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緬羊	[illegible]	[illegible]
羊肉	[illegible]	[illegible]
羊皮	[illegible]	[illegible]
羊毛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山羊	[illegible]	[illegible]
山羊毛皮	[illegible]	[illegible]
山羊乳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犬	[illegible]	[illegible]
犬皮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主要한副業展望

叺生産의過去와現在

(三)……鄭求興

大體以上標準에따라 叺生産團體는 生産하야 왓스나 各道에따라 多少相違되는點이 不少함으로 昭和二年八月 同規格을 改正하야 全鮮統一을 보게되엿다

- 縱繩 四十筋乃至四十二筋
- 延幅 二尺八寸
- 延長 五尺八寸
- 叺表裏差 三寸
- 縫目 片側二十五以上
- 經繩 一寸에對하여 五匁乃至六匁
- 緯繩 一寸에對하야 十四匁乃至十五匁
- 口取繩 一尺
- 底部에折込 三寸
- 一枚重量 六百五十匁乃至八百五十匁

以上規格의 改正은 主로 移出品中의 亂俵發生等實情에鑑하야 專혀 叺의 濫粗함을 主目的으로한것이다 爾來 良品의 産出을보게되어 日本內地로부터의 移入을 防止하고 一方으로 反對로 日本內地市場等으로 移出되게되자 昭和七年九月에 叺의 國産檢査를 施行함에따라 其價格을 또한 多少改正하야 今日에 이르럿다

- 縱繩數 直徑一分五厘乃至二分 三十八筋又는四十筋
- 耳組數 五本以內
- 表裏差 二寸
- 底部折込에 特히 一寸五分乃至一寸七分
- 親繩 直徑四分乃至四分五厘
- 縫目一尺에 對하야 十七內外
- 親繩 直徑二分乃至二分五厘
- 縫目一尺에 對하야 十分內外
- 縫目 親繩에 逆捲片側二十七以上
- 口取繩 一尺五寸
- 叺의幅 外側二尺七寸
- 叺의長 (底部折込에中心까지) 表面三尺一寸 裏面二尺九寸
- 重量 七百匁乃至八百五十匁
- 縫方 縱繩에 二筋次와 二筋次의 中間에 親繩을 貫케 綜合할일

叺의 製作에對하야는 大要前述과가튼 變遷을 보앗거니와 여긔對한 檢査는 當初郡을單位로 生産組合、部落會等 團體가 檢査를 하얏는데 이時代에는 其單位에따라서 區別하되 或은 優良、佳良、不良의三種으로 或은 一、二、三等 或은 ①、②、③ 或은 A、B、C 或은 上、中、下 或은 ㊤、㊥、㊦와가티 千差萬別로 起號를하야 地方的一種의銘柄으로하얏다 그러나 昭和二年에 叺의 規格統一實施後에는 天位、地位、人位의 三階級으로하고 道別記號를 併用케하얏다가 昭和七年同規則發布後는 階級은 前과가티 三階級으로하고 記號는 檢査所別로 併用케하야 今日에 이르럿다 그外 우리가 生産한 叺을 他道나 或은 他國으로 搬出할때는 梱包에 對하야 一定한 規格을 定하고 이에 適合치아니하면 搬出禁止를 식히고잇다

昭和二年의規程 ㈎ 繩繩의 直徑은 一寸二分以上의것으로 二筋掛橫四個所 ㈏ 一梱包의叺數 叺四斗入은 三十枚縮 高長二尺八寸以內

昭和七年의規程 ㈎ 繩繩의直徑五分以上의것을 使用하며 一個所二條乃至三條로 四個所掛로할것 ㈏ 一梱包의叺數 叺四斗入叺에는 二折三十枚縮로 高長三尺以內

以上과가티 穀物包裝用叺에對하야 生産奬勵及 梱包其他諸般을 指導한結果 朝鮮內製叺業은 漸次勃興하야 大正八年移入高 五百九十萬枚를 最後로 漸次移入의 頹勢를 보게되엇다 如此히 副業으로 叺이 發達되어온것은 即 말하자면 朝鮮農家에 製叺이 얼마나 副業的價値가 잇는가를 立證하는것이다

이제 叺의生産高及輸移出高를年別로 보면 如左하다

年次別	生産高 (千枚)	輸移入高 (千枚)	輸移出高 (千枚)
明治四十四年	無	[illegible]	[illegible]
大正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以上과가티 繩叺製造가 隆昌하게되매 各地에 此의 配給을 目的으로하는 會社의 出現을 보게되엿다 此等諸會社는 官廳指導下에 繩叺의 生産指導實質의 斡旋을하고잇스나 其配給의 圓滑을 圖하며 價格의 統一을 爲하야 더욱 强固한 團體를 結成할 必要가 잇다하야 昭和六年總督府殖産局長의 認可를어더 朝鮮繩叺協會의 創立을 보게되엇다。如斯한 經路를 밟아 今日에는 專혀 協會가 配給에 當하고잇다

二、肥料包裝用叺

肥料叺은 前述한바 穀用叺과가티 最初는 全然 日本內地로부터 肥料의 供給을 밧는關係上 朝鮮서는 生産數量이 極少하얏스나 昭和四年 咸鏡南道咸興附近興南에 朝鮮窒素會社創立을 보게되자 此會社製造肥料包裝用으로 朝鮮産叺을 供給하고저 交涉한結果 最初六百萬枚의 契約이 締結되어 此를 全鮮各道에 總督府에서 直接配當하고 [illegible] 指導奬勵하얏다 一方肥料叺은 穀用叺보다 內外共히 柔함이 必要하며 또 穀用叺보다 품이 만히걸리나 練熟함에따라 農家도 그다지 苦痛을 感하지아니하고 한편으로 價格이 穀用叺과가티 年中 高低가 잇지아니하고 最初價格에依하야 一定하야 農家는 安心하고 製造販賣할수잇다 이肥料叺은 現今 總督府에서 各道로하야금 一道에 一個의指定會社를 認可設立케하고 製造全部를 買收케하고잇다 昭和四年 總督府農林局과 穀物檢査所가 協定한 肥料叺規定을 보면 下와갓다

- 縱繩 直徑一分五厘乃至二分細目一尺에對하야二十內外
- 緯繩數 五十二筋又는五十四筋
- 耳組數 五本以內의九耳
- 表裏差 二寸
- 底部折込深 一寸三分乃至一寸五分
- 親繩 直徑三分五厘內外
- 縫目一尺에對하야 十五內外
- 縫目 直徑一分五厘乃至二分 [illegible]
- 縫目一尺에對하야 十八內外
- 縫目 親繩의 逆捲片側二十五以上
- 叺幅 外側二尺四寸
- 叺長 (表面)二尺七寸五分 (裏面)二尺五寸五分
- 重量 四百五十匁로부터五百五十匁
- 縫法 親繩으로 二筋次와 二筋次의 中間에 [illegible] 縫合

肥料叺의 昭和四年以來의 需要를보면 大差가 업것스므로 最初는 朝鮮窒素會社에 納入한 六百萬枚에 不過하엿든것이 年年 需要가 增加되여 昭和十年에는 一千五百萬枚의 販賣를 보게되엇다

- 朝鮮窒素會社 千萬枚
- 朝鮮農會 百二十萬枚
- 滿洲化學 百萬枚
- 日本內地 三百萬枚

以上과가티 穀用이나 肥料用이나 모다 每年 漸次 增加되며 將來도 明白하며 米穀增産、肥料增産、漁業發展、製鹽事業擴張에 따라 朝鮮內需要의 增加는 勿論 日本內地需要도 增加될것은 明確하며 一面 現今 朝鮮坊坊谷谷에서 農家에서 增産도 漸著하리라고 豫測된다。

最後로 今後 나의問題는 全朝鮮을 一括한 繩叺을 統制하야 價格의 變動이 업게하야 農家로하야금 安心하고 副業에從事하도록할일이다

滿洲農作物

比前年增收豫想

約一千六百八十萬噸

滿洲國 實業部 第一次發表에 依한 熱河及 興安西省을除한全滿主要農作物收穫豫想高는 約一千六百八十萬噸으로前年度의 推定實收高에 比하야 六%約百三十萬噸의增收이다 그中 大豆는 約四百二十萬噸으로 前年比十二%約 四十七萬噸으로 前年比七% 高粱은 約二百二十七萬噸 前年比十一%約三十萬噸의增收 玉蜀黍는 約二百六萬噸으로 前年比十%約十九萬噸의增收가 豫想되는데 이에 對하야 小麥은 約九十七萬噸으로 前年比三%約三萬噸의 減收가 豫想되고잇다。그런데 이를 各種別로 보면다음과갓다

	作付面積 (陌)	收穫可能面積 (陌)	陌當收量 (噸)	收穫高 (噸)	前年實收에 比하야增減 (×減)
大豆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豆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高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水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玉蜀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陸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雜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麻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蘇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用商品市況

京城 (八月四日)

◇菜蔬類

品名	單位	價格
호박	一貫	[illegible]
오이	一貫	[illegible]
꼬지 (가지)	一貫	[illegible]
馬鈴薯	白一俵	[illegible]
人蔘	同	[illegible]
蓮根	同	[illegible]
生薑	同	[illegible]
水芹	同	[illegible]
南瓜	同	[illegible]
茄子	同	[illegible]
胡瓜	百個	[illegible]

◇果實類

品名	單位	價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川魚類

品名	單位	價格
잉어	一貫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뱀장어	同	[illegible]
미꾸라지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자라	同	[illegible]
貝	一升	[illegible]

◇養鷄用鐵網

品名	單位	價格
四尺幅 二寸目	百尺	[illegible]
同 一寸半	同	[illegible]
同 一寸目	同	[illegible]
三尺幅 一寸半	同	[illegible]
同 一寸目	同	[illegible]
同 五分目	同	[illegible]
龜甲	同	[illegible]

◇毛皮類

品名	單位	價格
앙고라兎毛 三吋半以上	一匁	[illegible]
同 二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梳毛	同	[illegible]

◇家畜飼料

品名	單位	價格
蕎麥花生	百斤	[illegible]
乾鰯	[illegible]	[illegible]
大麥	百斤	[illegible]
成鷄用	五升	[illegible]
育雛用	同	[illegible]
中雛用	同	[illegible]
幼虫用粉	[illegible]	[illegible]
麩	百斤	[illegible]
玉蜀黍粉	九十斤	[illegible]
同 中割	同	[illegible]
同 粉	同	[illegible]
高粱粉	同	[illegible]
魚粉	十貫	[illegible]
糠	[illegible]	[illegible]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生牛	一頭	[illegible]
生豚	百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副業品

品名	單位	價格
麥稈眞田	一反	[illegible]
經木眞田	同	[illegible]
帽子	[illegible]	[illegible]
叺	[illegible]	[illegible]
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昏 (一〇一)

韓雪野 作 / 安夕影 畵

고설 (三)

려순은 편지를 다읽고나서、그얼이 예상보다 엇게 지척되는것을 깨닷는동시에 도리혀 맘의기장이 풀리는것을 늣겻다。그리고 그좋은 맘가운데서 무슨 좋아비치한 뭐웅웅함이 이러내는것을 또한 늣겻다。생각하면 그것은 지금까지걸어오든 길을 버리고、그것과는 딴길을 찾아들라는때에 오는심리이기도 하려니와、또한편 경재의편지자 어데지모르게 예상보다는、빗도 열도 업은 냉회와가튼 감각을 주는데서 오는 심리이기도 하엿다。

──려순이가 사장을 맛나고 돌아간다음에、회사로 나와보것다는 말이나、자기는 다시 떠만나를 멀요조차 업슬것이라는 말이나、또는、생각가해서는차자가고 십호나、그리지못한다는말이나는 말하자면、청춘의시(詩)와 노래를 이즌、너무도 사무적인、그리고 너무도 외교적인것밧게는 아닌가?

거기에는、말은 잇스나 호흡이 업고、옷지깅은 잇스나 피가업고、재는 잇스나 불이 업는것갓햇다。

려순은 사실 그동안、이루어질수 업는 애욕의굴레를 벗서버리라고 하엿다。경재를 이즈라고 하엿다 그리고 경재도속히 그러케 되엇스면 하고 바라기도하엿다。

그러나 그렇슴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재의 냉락해지신경음워는것은 결코 유쾌한일이 아니엇다。

그리고보니 그는 경재를 이즈라고 한 자기는 그를 다시 만남이로해서、마음의뿌리가 적잔히흔들렷는데、웅웅 한번만이라도 만나보앗스면 하고 기대하엿음을경재는、다시 만남으로 해서 도리혀 냉담해 진것가티 생각되엇다。세도인심가티 무상한것은 다시 업는것갓햇다。

그러나 그는 구지 인간의무상을 한하려하지 아니하엿다。

──인간이라것은、정(情)이업게 때문에 생활도 쓸쓸해지안을 하늘과거를짓어어니라、말하자면 정이잇기때문에 이즈려다가 연시 정이잇기때문에 다시 동그러지는 달과 가튼것이어서 동그러지고 이즈려진을 구하라 만하아무엇하라!

그는『인간세상 무단 그런거지』하는 허심한생각을 여저로헤가며 그날밤의 원통장을찻가소로매저다。

이튼날이정 교군 편지를 한번 다시 보라다자 말고 경재가 말한거간보다 좀일쯔게 회사로 나가다。

두달동안에 맡길 저계를 어즌듯한 무심한거리를 이리저리저니서 회사정문아페 다다르니 아론하게 생소하고 서투른 생각이나서 한참이나 서성거리다가 겨우 정문안에 드러섯다。

공장도 그자리에 잇고 사무실도 고전보든 그대로이오 변소하나 위치를 밧군것이업다。

다만 변한것이라면 새로 건축중이든 현재공장의 서남쪽 연덤을 파내고 지은 새공장의 준공된 모양뿐이다。

그러나 전체로 보아서 절도에다니든 경이오、틀도 나무도 굴뚝도 예보든 그대로어다。싸인 눈을 쓰러낸 뜰악의 누른 모래도 그윽히 녜정을 끄는것이 잇섯다。

엿 떠러진나무의 성긴모양이 지금은 이회사와 섭섭한 인연도 업는 려순의 약약한감정을 더욱 쓸쓸히 하엿다。

말하자면 인연이 엿든 녜날보다도、그모든 정경이 한층 더 눈을 끌고 감회를 자아내는것이엇다。

(이곳에서 다시 일을 해?)

하는 생각을하며 그는 다시한번 휘돌러 보고는 사무실편으로 잡아들엇다。

그는 아무도 만나고십지안어서 머리를 숙이고 바루이층으로 올라가는 층층대를 겨어올라갓다。아무를 만나더라도 못보는체하려고 하엿다。그런데층층대를 절반쯤 올라간때에 누가

『아、려순씨、오래간만입니다』

하고 알은체하는것이다。

하는수업시 고개를 들엇다、그는 급사、순용이엇다──

『그런데 웬일이서요? 그새어듸가섯서요? 사장이 퍽기다리서는데……』

하고 순진한소년이 상대자의 대답도 기다릴사이업시 정다운 제멋부터 네놋는동안、려순은우숨으로 대답하다가 그의말이 못나는것을 기다려가지고

『좋이、좋 물러해서요』

하고 다정히 대답하엿다。

『아、고리서요……이제 좀 괜찬습니까?……네 당행합니다』

『아니 아저은 어데 계시지 모르겟소……참 순용이는 누님이 새무실로 오셧다지?』

『아니요 가끔 일잇는데면 올라옵니다。그전에 다이프라이라를 죄배스다나요。해서 사장이 려자기하대를 채다노서군 잇는려니까 려순씨 문제와는……』

『그러신 치이시는 모양이드군요。그러니까 가툰하시면 누나 올려과 잇는게 조캣다는말이지』

하고 려순은 바루 사장실로 올라와다